

바로 지금, 여행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동



한국 정신문화가 흐르는 고장

관공 02-799-9175



봄으로 가는 길,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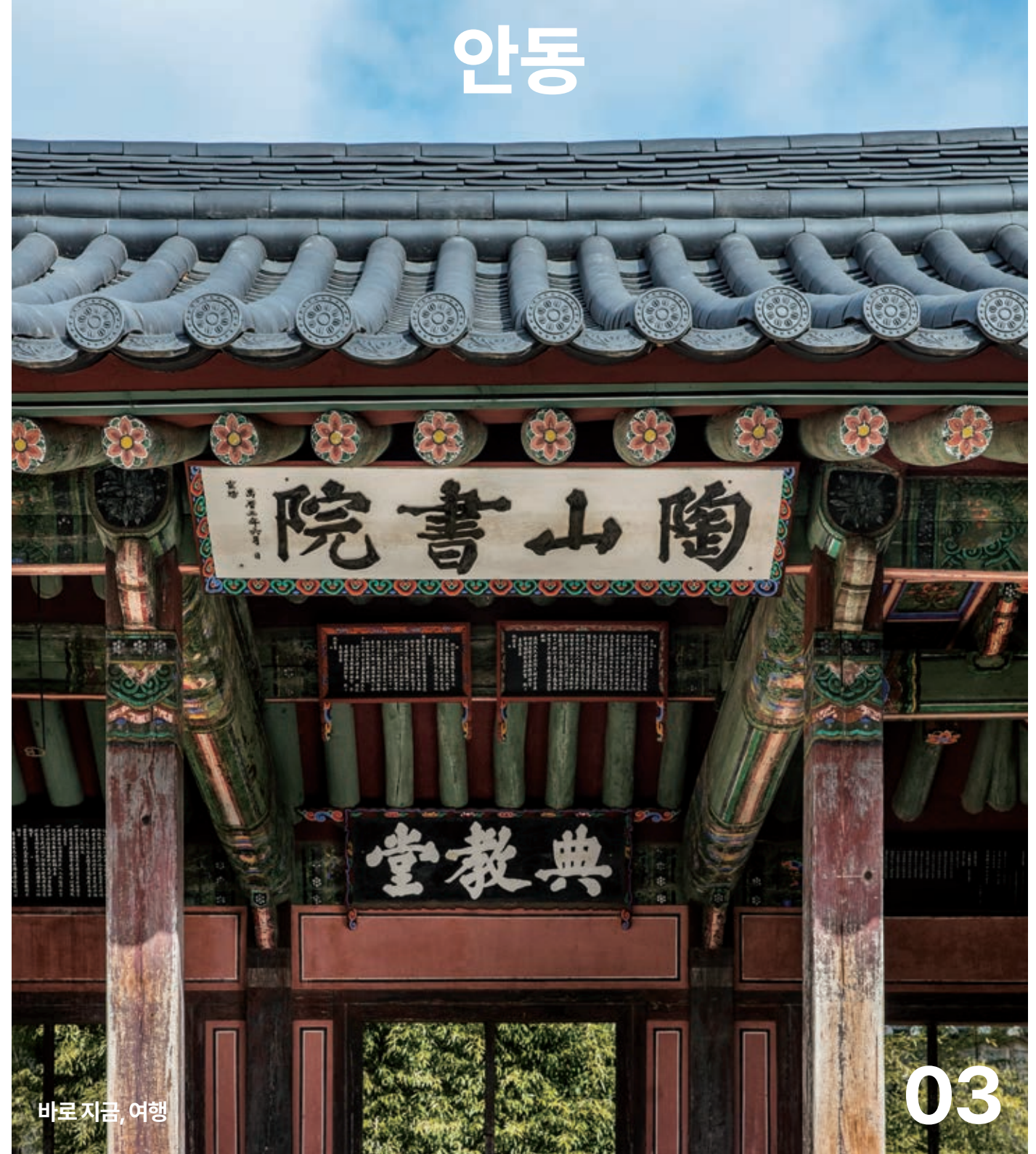
KTX 2024.03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동



바로 지금, 여행

# 03

봄으로 가는 길, 안동 | 논산 강경, 시간을 달리다 | 삼척 중앙시장으로 온 청년들



ARC'TERYX

# DELIGHT IN THE DETOUR

뜻밖의 여정이 주는 즐거움



arcteryx.co.kr

NO WASTED DAYS™

# CONTENTS

2024.03



## 034 테마 여행 안동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전, 선조들의 자취를 찾아 경북 안동으로 간다. 이항 선생의 도산서원, 일제가 상처를 남긴 임청각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 곳곳에 아로새겨진 한국 정신문화의 역사를 더듬어 여행했다.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  
우유에 진심을 담다”

우유는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아100%  
체세포수 1등급 · 세균수 1A



2024.03



010

세계 도시 이야기

동서양이 공존하는 말레이시아 페낭은 풍경부터 음식까지 특별한 여행을 약속한다.

022

맛집 탐방

푸릇한 봄, 서울 경의선 숲길 주변에서 모두가 함께 즐길 비건 옵션 식당을 찾았다.

032

미니 인터뷰

60대 여성 킬러의 삶을 다룬 뮤지컬 <파과>. '어린 조각' 역의 유주혜 배우와 대화했다.

056

기차 타고

금강 물길 따라 역사와 문화가 굽이치는 곳, 충남 논산 강경에서 시간 여행을 즐겼다.

064

이색 여행

강원도 삼척 중앙시장 청년물 '청춘해'에서 청년 상인의 환한 미래와 마주했다.

072

이달의 공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이 새로 단장했다. 사람도 유물도 아름다워 숨이 막혔다.

078

촬영지 여행

이 계절, 생명력 가득한 풍경을 자아내는 전남 구례를 영상 작품으로 들여다본다.

084

문화 돋보기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사투리 솜품. 지역어 고유의 맛과 위트가 흘러넘친다.



KORAIL INFORMATION

098

코레일 소식

106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8

열차 이용 안내

110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Panasonic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파나소닉 안마의자 3월 봄맞이 이벤트

제품별 할인 및 기프트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기간: 2024.3.1 ~ 2024.3.31



※판매점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직진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러자 저소 분점 (02)7542-8452 서울시 서초구 | 파나소닉 HM프러자 (02)755-8452 서울시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러자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러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러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러자 (053)421-8452 대구시 중구 | 파나소닉 용인프러자 (051)255-0222 부산시 중구 | 파나소닉 영남프러자 (051)633-8452 부산시 동구 | 파나소닉 HD프러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 파나소닉 한양프러자 (041)522-8452 천안시 동남구 | 롯데 백화점 본점 9층 (02)726-4545 서울시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143-7793 서울시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시 강남구 | 롯데 백화점 밀산 3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센텀 7층 (051)730-3330 부산시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B1층 (042)523-5322 대전시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시 동구 | 롯데 백화점 무영센터 4층 (02)3467-8348 서울시 강남구 | 롯데 백화점 북촌 B1층 (02)2163-1843 서울시 영등포구 | 롯데 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롯데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시 영등포구 | 롯데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시 중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시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9층 (02)3479-1628 서울시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782-0854 경기도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시 동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시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차림1층 (042)607-8659 대전시 유성구

들어가는 글



경북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뒤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전교당은 스승과 제자가 모여 학문을 논하던 곳입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문을 활짝 젖혀 두고  
자연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합니다.  
도산서원에서 첫 봄을 맞이한 선비라면  
서원을 둘러싼 풍경에 남몰래 감탄했을 거라는  
재미난 생각을 하다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3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달이지요.  
처음 가는 학교, 회사, 공간... 모든 것이 낯설어  
조금은 당황스러워도,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매화, 개나리, 산수유가  
곳곳에서 따스한 봄을 만끽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을 내려 두고 계절을 누려도 좋은 3월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긴장감에 조금할 때는  
봄이 선사하는 정경에 감탄하고, 때로는 사진도 남기며  
독자님만의 속도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KTX매거진> 기자 남혜림

# KTX

바로 지금, 여행

## MARCH 2024

2024년 3월호 제21권 제3호 통권 제237호  
2024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인턴 기자** 김수아 ksau@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형  
**차장** 정승헌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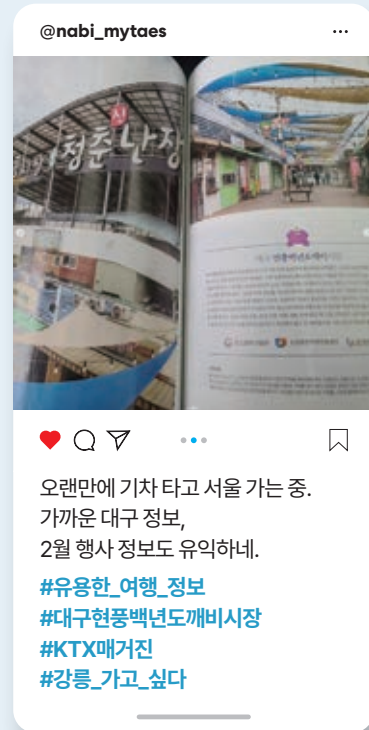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az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 제로인 초콜릿 간식 **초코헬스 제로넛츠**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몬드·헤이즐넛·캐슈너트에 무설탕 초콜릿을 코팅한 제품으로,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 등 높은 품질의 원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제품 문의 02-791-0756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봄의 활짝!  
우리 빛깔사랑 할래요!



www.jgfestival.or.kr



## 제62회 진해

# 군향제

2024. 3. 23.토~4.1.월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및 진해루 등 일원





# PELANGI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 공존과 조화의 미학 페낭

말레이시아 페낭은 자국 문화에 유럽, 인도, 중국, 타이 등 타국 문화가 어우러져 풍경부터 음식까지 특별하다.

말레이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페낭은 반도 북서쪽, 말라카해협에 자리 잡은 섬이다. 제국주의 시대, 배 타고 온 유럽 열강이 가장 먼저 밟은 말레이시아 땅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유용하고 아름다운 섬을 그냥 두었으랴. 사람이 모이고 사업이 일어났다. 유럽, 중국, 인도, 미얀마(버마), 타이의 다양한 문화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페낭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유럽 소도시를 연상시키는 콜로니얼 양식 건물과 동양풍 건물이 공존하고, 교회와 모스크, 불교 사찰과 도교 사원이 번갈아 나타난다. 함께 섞여 긴 세월을 통과한 페낭에서는 조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페낭의 중심은 조지타운이다. 1786년 페낭 점령 당시의 영국 왕

<미쉐린 가이드>가 202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페낭 편을 내놓았다.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페낭은 말레이시아 사람이 '음식의 수도'라 부를 만큼 미식 문화가 발달한 곳. 레스토랑과 길거리 음식 모두 훌륭하다.



조지 3세 이름을 따 도시를 건설했다. 서구식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한편, 아시아의 사업가와 노동자도 기회를 찾아 오거나 동원되어 이주해 집을 지었다. 19세기 동양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인 중국 사업가 청팻쯔가 1904년 완공한 집은 파란 외관 때문에 흔히 '블루 맨션'이라 부르는데, 고향 푸젠성의 자기를 부수어 모자이크로 장식한 화려한 지붕이 눈을 사로잡는다. 해변에는 수상 가옥이 즐비하다. 땅을 못 얻은 이주자들이 바다 갯벌에 말뚝을 박아 조성한 마을은 여전히 주민이 거주하고, 일부는 상점으로 변모했다. 시간이 흘러 이야기는 역사가 되고, 2008년 유네스코는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과 문화 도시 경관"이라는 이유였다. 웅장한 석조 건물과 알록달록한 원색의 집이 쪽 이어지고, 자동차와 자전거 인력거가 나란히 달리는 풍경에 유네스코 위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 같다. 세월을 머금은 벽 곳곳에 불쑥 등장하는 벽화 또한 이곳의 매력이다. 이 거리 사람들의 사연을 품은 벽화라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따스해진다. 페낭에서는 도무지 사진기를 내려놓을 틈이 없다. 여기에 음식이 행복한 여행의 정점을 찍는다. 국수 아삼락사를 비롯해 꼬치구이 사테이, 볶음면 차웨이테오, 이 지역 특유의 빙수 첼들 등 맛있고 저렴한 요리가 여행자를 유혹한다. 옛 열강이 페낭을 '동양의 진주'라 별명 붙였다기에 눈을 흘겼지만, 여행하고 나면 정말 내 마음속 진주로 간직하게 되는 곳. 페낭은 풍경부터 음식까지 반짝반짝 빛난다.

# 치마저고리에서 후드 점퍼까지 교복 변천사

전국 학교에 교복 입은 아이들이 계절의 활기를 더한다.  
시대에 따라 교복도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세상에 교복같이 편리한 옷도 없다. (중략) 게다가 교복은 작업복, 운동복, 니들이웃, 때로는 잠옷으로도 겸용된다. 비 오는 날이나 눈 내리는 날에도 입을 수 있는 편리복(便利服)이다.” 1965년 한 신문의 기사다. 요지는 한 벌 마련해서 4년을 장소와 날씨 관계없이 편하게 입어야 할 교복을 요즘 대학생이 통 안 입어 문제라는 것. 그랬다. 한때는 대학생까지 교복을 입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교복을 채택하기에, 새 학기를 맞은 학교 주변은 교복 물결이 넘실댄다. 어른들에겐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하는 풍경이다. 정작 본인의 교복 시절엔 친구와 같은 옷을 입는다는 친밀감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갑갑해서 벗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교복은 어른이 정해 미성년자가 입는 옷이다. 지식과 사회성을 갖춘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 교실에 모아 놓고 교육하면서 복장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생으로서 신분을 자각해 규율을 지키고 일체감·소속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교사 등 어른 입장에서는 소위 ‘관리·감독’하기가 용이했다. 일찍이 영국의 사립학교나 조선의 성균관도 복장 규정을 두었는데, 입학이 까다로운 데다 경제활동이 아닌 학문에 시간을 보내는 일 자체가 특권이어서 이 복장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최초의 근대 교복은 1886년 설립한 이화학당이 도입했다. 무채색 거리에서 여학생이 붉은색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지나갈 때 사람들 눈길을 끌었을 풍경이 눈에 선하다. 1897년 배재학당은 처음으로 서양식 의복과 모자를 지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복과 일본식 교복이 공존하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총동원 체제하에 남학생 교복을 군복화하고 여학생은 ‘몸빼’라 부르는 작업 바지를 강제하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다시금 일본식 교복이 돌아온다. 남학생은 단추를 목까지 채운 검정 상하복, 여학생은 세일러복. 수많은 영화·드라마에 나와 익숙하고, 전국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교복 대여점에서 내놓는 그 교복이다.

1980년대 잠시 자율화 시대를 거쳐 교복도 변화를 맞는다. 바지통을 줄이고, 치마를 짧게 하는 등 학생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갔다. 불편한 재킷과 치마·바지 대신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살길을 도모하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 티셔츠와 후드 점퍼가 교복으로 등장하고, 여학생도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복 교복을 채택하는 학교 또한 생겨났다.

여전히 교복은 어른이 정한 대로 미성년자가 입어야 하는 옷이나, 실소비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이만큼이나 반영한 것은 다행이다. 봄처럼 예쁜 청춘들이 교실과 교과서, 교복 등 온갖 ‘교(敎, 校)’에 갇혀 봄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겪고 배워 나가는 동료로서, 교복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때다.

SONO  
HOTELS & RESORTS



【솔비치 남해】조감도 2025년 오픈 예정



2023.11 진행상황

## 2024년 신규 회원권 ‘소노러스’ 상품 출시!

# 소노호텔앤리조트 뉴멤버십 회원모집!

글로벌 체인 리조트로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뉴멤버십 ‘소노러스’ 회원을 모집한다. 뉴멤버십 ‘소노러스’는 대한민국 멤버십 최초로 가족회원이 입회할 경우 직계가족에 한하여 무제한 회원등재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일불 납부 직후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고, 객실 및 부대시설 회원 기본 할인 혜택과 입회금의 50%를 ‘사용차감 입회금’으로 사용하여 추가할인까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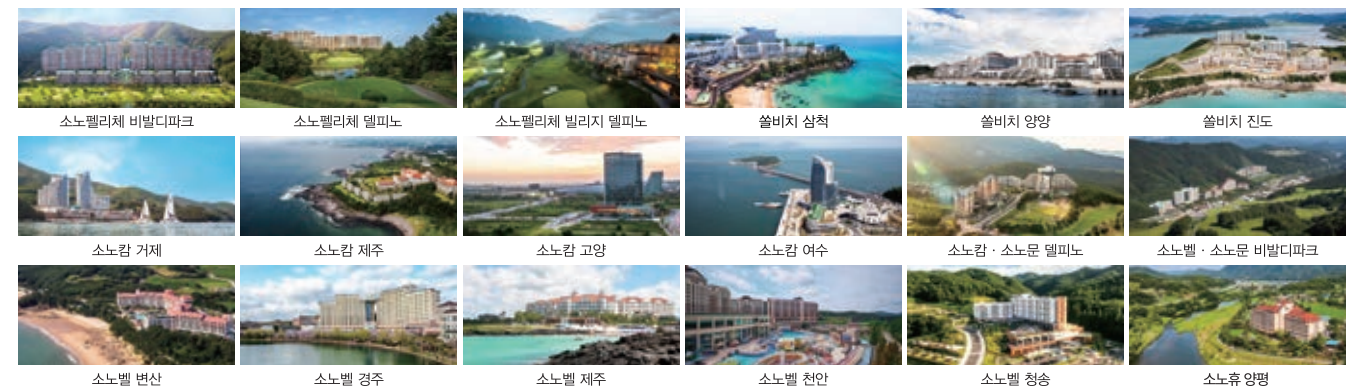
전국 16곳 소노호텔앤리조트의 객실을 20년동안 회원요금의 20% 할인(사용차감 입회금 사용) 및 다양한 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션월드, 승마, 골프, 스키 등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레저와 스포츠 시설을 소노러스 회원권 하나로 회원 기본할인과 입회금 사용시 추가할인을 받아 최대 약 60%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법인 명의로도 입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및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는 타업체와 차별화된 정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이용 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각 회원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하게 1:1 회원 전담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측은 “회원권 구입 후 사용하면서 성수기 리조트 예약이나 다양한 편의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2024년 ‘솔비치 비발디파크’가 첫 소노러스 사업장으로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며, 2025년 ‘솔비치 남해’가 완공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입회안내 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 사진

# 학전은 영원히

개관 33년 만에 폐관 소식을 알렸던 학전블루 소극장. 위기의 문턱에 대학로의 열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

지난해 11월 학전이 곧 폐관한다고 알려진 후 시작된 <학전 어게인 콘서트>. 그동안 학전을 이끈 김민기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마련한 릴레이 형식의 헌정 무대다. 학전에서 뿐 아니라 한국 공연 문화의 뿌리가 어떠한 고난을 마주해도 지속되리라는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었다. 학전 출신 가수과 배우들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배우 이정은은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 나와 릴레이 공연 중 하나인 뮤지컬 <고추장 떡볶이>가 매진되는 게 올해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그들의 진심이 통했다. 3월 15일 폐관 예정이었던 소극장은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은 피했다. 학전은 어떤 곳이기에 수많은 예술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까.

1991년 3월 15일, 김민기 대표가 설립한 학전은 극단이자 극장으로 출발했다. 배울 학(學)에 밭 전(田).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 예술인을 키워 냈다. 배우 설경구는 공연 포스터 붙이는 아르바이트로 학전에 발을 디뎠고, 이정은도 당시 포스터를 붙였다며 추억을 회상했다.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오페라의 유령>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조승우와 최근 영화 <서울의 봄>으로 강렬한 연기를 보여 준 황정민 또한 학전을 대표하는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출연자였다. 학전은 1990년대 아이돌 문화 열풍으로 무대에서 밀려난 가수들에게도 공간을 내주어 안치환, 박학기, 장필순 등 개성 있는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다. 그야말로 예술 학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다.

학전은 폐관을 알린 이유로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암 투병을 언급했지만 <학전 어게인 콘서트> 총감독을 맡은 가수 박학기는 "사실 학전은 애초에 유지될 수 없는 극장"이라 말한다. 소극장 규모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공연을 자주 올려야 하는데, 김 대표는 소위 '돈 되는 공연'을 목표하지 않았다. 자본 문제로 공연이 변질되는 걸 우려해 지원도 마다했다. 노래 '아침 이슬'과 '상록수'

저작권료로 공간을 지켰다. 공연의 의미를 중시하는 그는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 적자가 났음에도,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전국 여러 지역의 폐교를 돌면서 공연을 선보였다. 그의 굳은 신념 덕에 학전의 대표 어린이 뮤지컬 <고추장 떡볶이>는 지난달까지 열여덟 번째 시즌으로 관객과 만났다. 예술 공간의 폐관 소식이 놀랄 일은 아니다. 서울 창신동 백남준 기념관도 관객 감소로 폐관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회생했다. 세실극장 역시 재정난으로 폐업 수순을 밟던 중 국립정동극장이 새 운영 주체가 되면서 명맥을 이었다. 예술극장 나무와물, 종로예술극장 등 대학로를 지키던 소극장들은 소리 없이 자취를 감췄다. 단순히 예술인이 설 무대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작은 공간에서 극에 몰입한 배우의 숨소리를 듣고, 클라이맥스를 향해 고조되는 감정을 느끼고, 땀으로 흠뻑 젖은 배우의 눈앞에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경험은 관객에게도 소중하다. 관객이 배우에게 직접 호응을 보낼 수 있는 예술 장르는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공연이 유일하다.

"벽체 하나는 남겼으면 좋겠다." 학전블루 소극장 입구에 세워진 고 김광석을 기리는 기념비만은 지키고 싶다고 말한 김민기 대표. 학전이 계속 운영된다고 해도 그의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공간을 유지한다는 사실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오래도록 지켜 내고자 애쓰는 가치를 안다면, 이제 그 책임을 나누어 질 차례. 무대에선 예술인이 흔히 하는 말이 떠오른다.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고 임했다." 마지막 무대처럼 열심히 공연하겠지만 마지막은 아니길. 예술인의 미래는, 예술을 누릴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



# 한국미술의 오늘을 만나다

# 2024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展

www.arthankook.com

- 강희영
- 김순주
- 김현숙
- 김형길
- 남지연
- 서동진
- 설민기
- 소울황소
- 신소라
- 아일랜드
- 안난숙
- 양화정
- 여강연
- 오민준
- 이반디
- 이소
- 이원태
- 이재선
- 전정우
- 정희운
- 조숙연
- 포리 심
- 황승현

## 2024. 3. 22. FRI — 3. 30. SAT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주최 비즈한국·일요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봄 향기 두 손에 담아 드려요

이름에 계절이 담긴 도시, 강원도 춘천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굿즈를 한데 모았다.



# chuncheon goods

### 1- (르사봉) 막걸리비누 르뷰흐

춘천 먹거리로 '바른 씻을 거리', 즉 수제 비누를 제작하는 르사봉은 식물 유래 원료만 고집한다.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의 막걸리비누는 춘천양조장의 춘천막걸리가 주재료다. 천연 계면활성제와 보습제를 사용해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써도 무리 없다. 장미 향 베이스의 은은한 향기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춘천 쌀과 메일로 제조한 비누도 판매한다.

문의 @le.\_.savon

### 2- (센트정원) 룸스프레이와 멀티퍼fum

조향사이자 캔들 아티스트 고희정 대표는 춘천에 공방을 열고 캔들, 향수, 부케 등을 제작해 왔다. 시그니처 향은 소양강의 물 내음을 부드럽게 표현한 '소양', 삼악산의 단단한 땅과 소나무가 연상되는 상쾌한 '삼악', 포근한 춘천의 봄날을 나타낸 '봄내' 세 가지다. 춘천을 떠올리며 배합한 향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다.

문의 @scentgarden\_

### 3- (감자아일랜드) 감자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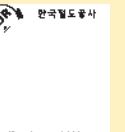
강원도 작물 하면 감자다. 감자아일랜드는 청량한 감자 맥주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강원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한 청년들이 2019년 강원도 감자와 독일 맥주를 결합해 감자 맥주를 선보였고, 뒤이어 옥수수과 단팥 등 강원도 작물을 활용한 로컬 맥주를 개발했다. 맥주를 마신 후 입안을 맴도는 향에 집중하자. 감자의 풍미에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문의 @gamja\_island

### 4- (춘천일기) 춘천 플라로이드 마그넷

육림고개에 로컬 스토어 춘천일기를 차린 부부는 전공과 경력을 살려 지역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살듯 여행하기, 여행하듯 살기' '♥\*~\*'이라는 슬로건으로 춘천 굿즈를 만들고, 지역 작가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왔다. 최근 스튜디오 예술과 함께 내놓은 플라로이드 마그넷이 인기를 얻었는데, 육림고개·해피초원목장 등 춘천 여행지를 배경으로 했다.

문의 @chuncheondiary



'옥수수스프'를 활용한 고소하고 짠 맛의 팝콘

### 오뚜기 콘크림스프 팝콘 4.0점

남혜림 과자 봉지를 뜯자마자 침샘을 자극하는 진한 수프 향이 나요. 팝콘도 제법 크고, 옥수수 풍미도 깊습니다. 이 팝콘 한 봉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단짠단짠 콘크림스프 팝콘, 우리 또 보자! ★★★★★ / 김수아 오뚜기 수프를 오랜 시간 먹어 온 사람이라면 이 은은한 부드러움과 끝에 느껴지는 후후 맛을 단번에 알아차릴까요? 저는 오래 음미하고서야 느껴졌어요. 무난한 맛 같았는데 먹다 보니 너무 다네요. ★★★ / 김현정 수프에 팝콘을 찍어 먹으면 어떨까 하고 과거에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장점. 맛은 그냥 팝콘... ★★★★★ / 강은주 '영화관에서 안 먹는 팝콘을, 굳이?'라고 생각한 오만한 자, 회개할지니. C\*V 팝콘이나 롯데 시네마 팝콘보다 농밀한 '옥수수스프'의 감칠맛에 그저 '갯뚜기'를 외친다. ★★★★★

### 3.3점 농심 먹태깡 큰사발면 청양마요맛

남혜림 아직 먹태깡을 먹지 못해 슬프지만, 이렇게라도 맛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매운맛에 약한 저는 역시나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아. 이것은 청양마요 맛인가, 통각인가. ★★★ / 김수아 먹태깡 대란일 때 "그럴 거면 먹태를 먹는 게 낫지 않아요?"라고 했던 제가 컵라면 버전을 먹다니. '괴식'까지는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맛. 양배추 플레이크로 속을 달래요. ★★★ / 김현정 먹태깡 안 먹어 본 사람의 리뷰입니다. 마요네즈 때문에 소심해진 저를 청양고추가 격려해 주어 '완캡' 했어요. 힐링 푸드 청양고추 ♥ ★★★★★ / 강은주 먹태와 청양마요가 만나 영생을 약속하고, 이들이 농심을 만나 먹태깡을 낳더니, 먹태깡과 컵라면이 만나 먹태깡 큰사발면을 낳았더라. 애매한 맵기, 소스, 수프의 삼위일체가 이 제품을 '한정판'에 그치게 하리라. ★★★



과자 '먹태깡'을 재해석해 매콤하고 고소한 라면

## 우리 지금 만나, 이색 컬래버레이션

음식 간 융합 열풍은 아직 진행 중. 그 유행에 슬며시 탑승해 봤다.



'허쉬 초콜릿' 크림으로 채운 물방울 모양 슈

### 투썸플레이스 허쉬 초콜릿 크림슈 3.1점

남혜림 불난 속을 달콤한 디저트로 달래 보겠습니다. 오, 냉동고에 넣었다가 '얼먹' 하니 안쪽 초콜릿 크림이 아이스크림 같아요! 하지만 머랭 때문에 슈가 녹녹해졌어요. 입안에서 질척거리는 느낌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 / 김수아 특정 초콜릿이 떠오르는 모양은 귀엽지만 컬래버 시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남김 없이 잘 먹었습니다. ★★★★★ / 김현정 조선 시대인 1894년 설립한 초콜릿 회사라니 대단하다. 슈라는 이름과 다르게 겉면이 부드럽진 않지만, 안에 든 초콜릿 크림이 세상 시름을 잊게 한다. ★★★★★ / 강은주 크림슈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보드라운 머랭의 자태에 홀려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으나 이내 시험에 들었음을 깨닫나니... 마냥 달기만 한 크림이 밍밍하고, 허쉬 초콜릿의 온전한 풍미를 느낄 수 없어 헛헛하다. ★★

### 3.4점 세븐일레븐 오징 청양마요 참치 삼각김밥

남혜림 또 만났다, 청양마요.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흰쌀밥이 아닌 간장 채소볶음밥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속재료는 기본에 충실한 맛. 하지만 과자를 기반으로 해서인지 은근 달아요. ★★ / 김수아 오징 노가리칩이 얼마나 사랑받았길래 삼각김밥으로 다시 태어난 걸까요? 무난하고 조화로운 맛에 일반 참치마요 대신 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 김현정 오징 노가리칩 안 먹어 본 사람의 리뷰입니다. 간장볶음밥에 참치에 마요네즈에 과자 씹는 느낌 나는 양파칩까지... 좀 많이 나가셨어요. ★★★★★ / 강은주 오징 노가리칩이 곧 자기의 형상대로 비법 가루와 양파 플레이크를 도포해 바삭바삭한 식감의 '더 커진 참치'를 완성했으니, 먹기에 심히 좋았더라. 재구매 의사 200퍼센트. ★★★★★



과자 '오징 노가리칩'의 비법 가루를 첨가한 삼각김밥

문단 195 \*

# WELLSENSE 고민 백과

##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도와 실패의 반복, 다이어트. 의지가 부족했을까, 방법이 잘못되었을까?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우먼센스> 웹페이지에서는 웰니스 콘텐츠와 체험단을 다루는 웰니스 서비스 '웰센스(WELLSENSE)'를 만날 수 있다. 그중 구독자 참여 콘텐츠인 '고민 백과'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코너다. 이번 주제는 '다이어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소용없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려움에 처한 독자의 고민이 수많은 질문으로 이어졌다. 김유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건강한 다이어트 노하우를 들려준다.

김유현 가정의학과 전문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건강증진센터 근무 중

세계비만협회 SCOPE(비만 치료 전문가), 생활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 NSCA-CPT(미국 공인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 등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위원회 간사·비만 전문 인정의

2013년부터 비만인 모임 '비우기(비만을 아는 우리의 이야기)' 진행, 2022년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베스트 질문 10

#### 간헐적 단식

**1 Q 다이어트 방법으로 단기 단식이 괜찮을까요?**  
3일간 단식을 하면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만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것이 문제죠. 금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도 같이 줄어들습니다. 특히 30대 이후에는 단식할 때마다 근육이 사라지면서 살찌는 체질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싶다면 24시간 이상 금식하는 것보다 하루에 14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섭취를 제한하는 편이 좋습니다.

**2 Q 간헐적 단식을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루 이상 금식할 경우 근육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에너지를 비축하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것은 총섭취 칼로리입니다. 16:8 단식(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내 식사)에서 8시간 동안 평상시보다 많은 양을 먹으면 당연히 다이어트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꾸준히 소식하고 운동을 했음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근력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다이어트의 진실

**1 Q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정말 있나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내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은 체중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60킬로그램이라 하더라도 100킬로그램에서 60킬로그램까지 감량한 사람과 원래 60킬로그램인 사람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40킬로그램을 감량한 상태의 몸에서는 장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이 나와 에너지 소모가 더디고 더 많은 음식과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2 Q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끄는 '식초트릭'으로 혈당 관리를 하는 중인데,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는 걸까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탄수화물 소화는 물론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결국 당의 체내 흡수가 더뎌지면서 식후 혈당 피크를 낮추는 원리죠. 그렇지만 당뇨병을 치료하지는 못 합니다. 체중 감량도 칼로리 제한과 운동을 병행해야 가능해요. 위가 약한 경우에는 식초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Q 식사는 운동 전이나 후, 언제 해야 좋나요?**  
공복에 운동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허기가 지고 그에 따른 보상 심리로 음식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후 운동은 한두 시간 뒤에 나타나는 혈당 피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위식도역류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 약속이 자주 있다면 식전 운동, 아침을 바쁘게 보낸다면 저녁 식후 운동을 권장합니다.

**4 Q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요?**  
평상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고도비만인 경우 걷기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운동해야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운동 시간을 서서히 늘리고 강도를 높여야 하죠.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다이어트 부작용

**1 Q 다이어트 중 생리 불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급격하게 줄이면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해지면서 생리 불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방법이 도움이 돼요. 체중 감소로 생리 불순이 온 경우 대개 2~3개월 안에 주기가 안정화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 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 다낭성난소증후군 같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Q 다이어트만 하면 찾아오는 변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섭취하는 음식물 양이 적으면 장 움직임은 더뎡습니다. 소화된 음식물이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니 수분을 빼앗겨 변도 딱딱해지죠. 이럴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섭취가 필요해요. 식이섬유는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낮지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다이어트의 시너지 효과

**1 Q 운동하지 않고 식단 조절만으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한가요?**  
초기 체중 감량에서는 식단 조절이 핵심이지만 꾸준히 감량하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음식 섭취나 에너지 소비량이 바뀌어야 하는데, 음식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운동은 꾸준히 강도를 늘려갈 수 있죠. 비단 다이어트 문제를 떠나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근육과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 특히 대근육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2 Q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비만 치료 용도로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약물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의 보조제는 성분에 따라 오래 복용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각각의 성분은 주치의와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다만 다이어트로 필수 미량영양소가 결핍되기 쉬우므로 평상시 비타민 D와 비타민 B, 엽산, 철분 등을 포함한 종합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먼센스>의 웰니스 서비스 '웰센스'와 함께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의 라이프 큐레이션 서비스 '웰센스(WELLSENSE)'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방대한 제품 리뷰를 선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웰니스 체험단 응모, 베스트 리뷰어 이벤트, 전문가 고민 상담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우먼센스> 웰센스와 함께하세요!



<우먼센스>의 웰니스 서비스 웰센스 바로가기

# 비건도 논비건도 다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건기 좋은 계절이다.  
서울 경의선 숲길을 산책하다  
누구나 즐길 만한  
비건 옵션 식당을 골랐다.



## 리틀갱스터



▶ 망고 썸뎀 샐러드 플래터 2만 3000원 말라카 스위트 앤 사워 라이스 1만 7000원  
📍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12길 11-3 📱 @vegan\_littlegangster

**경의선 숲길, 한 걸음 더**  
야외 좌석을 마련한 비건 카페 '홀트'.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공간으로 산책하다가 커피 한잔 마시기 좋다. 내부에서도 통창을 통해 푸릇푸릇한 풍경을 눈으로 음미할 수 있다.

리틀갱스터\_동그랗게 두른 그린빈에 겹겹이 쌓은 채소, 그 위에 가지런히 올린 샛노란 망고. 이 낯선 음식은 '리틀갱스터'의 신메뉴 '망고 썸뎀 샐러드 플래터'다.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 등 다국적 일상식을 선보이는 이곳은 퓨전 비건 레스토랑을 지향한다. 채소를 갈고 졸여 모든 메뉴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정성 어린 과정을 거치는데, '말라카 스위트 앤 사워 라이스'의 강정을 감싼 달콤한 소스도 이렇게 탄생했다. 오랜 시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자연담은 시그니처 파스타'의 포도도로 소스도 마찬가지. 올해로 요리를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된 유지영 대표는 여전히 메뉴 개발에 열정이 넘친다. 광, 호주 등에서 근무한 그에게 해외로 떠나는 일은 새로운 자극을 얻는 연례행사다. 현지 시장과 마트에서 낯선 식재료를 경험하고, 그 재료를 활용한 현지의 음식을 맛보며 영감을 얻는다. 미식의 즐거움뿐 아니라 메뉴 간 조화로움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아홉 코스로 이루어진 비건 뷔페를 열어 손님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의 끝없는 도전으로 탄생한 이색적인 조합이 비건 메뉴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 TRAVEL TIP

서울 용산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인 경의선은 1906년에 개통했다. 경의선을 지하화하면서 남은 옛 철길이 서울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경의선 숲길'이라는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수도권 전철 효창공원앞역에서 출발해 공덕역을 지나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길은 총 6.3킬로미터. 평범한 공원과 달리 기다랗고 폭이 좁은 구조가 이곳이 철길이었음을 알려 준다. 경의선 숲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식당과 카페가 많아 걷는 재미가 있다. 일부 구간에는 철길을 보존해 두었다.





슬런치 페퍼로니 피자 2만 3000원 그린 시금치 뇨끼 2만 3000원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61-6 @slunch\_factory\_hongdae



**슬런치 팩토리** 2012년 상수동에서 문을 연 '슬런치 팩토리'가 지난해 9월 연남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단계별 비건 메뉴를 판매하는 이곳은 비건과 논비건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다. 비건 와인도 있어 모임 장소로 제격이다. 인기 메뉴는 달걀과 버터 없이 만든 '그린 시금치 뇨끼'. 입안에서 수제 뇨끼의 거친 질감, 완두와 버섯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비건 치즈의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피자를 주문할 땐 비건 치즈를 선택해도 좋다. 순두부를 베이스로 직접 개발했는데, 먹은 후 포만감을 고려해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을 일반 치즈와 비슷하게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슬런치 페퍼로니 피자'에 올라가는 비건 페퍼로니 역시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이현아 대표는 단순히 건강해 보이기만 하는 음식보다는 논비건이 먹어도 맛있는 음식에 집중한다. 기존 음식을 대체하는 영역을 점차 넓히는 게 그의 지향점이다. 식당을 찾은 비건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식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 대표. 함께하는 테이블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그 덕분에 모든 사람이 각자 원하는 음식을 앞에 둔 채 웃고 이야기하는 풍경이 가까워졌다.



슬런치 팩토리

**경의선 숲길, 한 걸음 더**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지구샵 제로웨이스트홀'. 대나무 칫솔, 고체 치약 외에도 다양한 다화용품을 만날 수 있다. 세제를 공병에 담아 구매하는 리필 스테이션도 추천한다.



언덕

**언덕** 주택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로컬스티치 연남'. 이곳 1층에서 독특한 형태와 이름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비건 샌드위치를 판매한다. 'ABANDONED SANDWICH(어밴던드 샌드위치)'라는 이름으로 검색되지만, 단골손님은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부른다. 대표 메뉴는 '첫 번째 언덕'. 천연 발효종 바게트 사이에 두둑하게 얹은 채소는 소이 마요와 견과류 페스토로 버무려 고소함이 일품이고, 아삭한 사과가 느끼함을 잡아 준다. 납작한 피타 브레드 위에 연근, 감자, 고구마 등 뿌리채소를 한가득 쌓은 '접힐 언덕과 뿌러진 덩어리'는 채소 본연의 담백한 맛이 느껴진다. 거품이 몽글몽글하게 올라간 '진저 듀유 라떼'와 잘 어울리는 메뉴. 박민혜 대표는 단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전부터 계속해 왔다. 현재는 저마다 의미를 부여한 다양한 모양의 샌드위치로 언덕을 표현한다. 그는 매일 아침 망원시장에 가서 재료 상태를 보고 손님에게 선보일 새로운 메뉴를 고민한다. 종종 배달 신청을 받아 자전거 배송 서비스 키크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연남동 외 지역으로 향하기도 한다. 문고리에 걸려 둔 귀여운 포장지로 감싼 샌드위치가 선물처럼 느껴질 테다.

첫 번째 언덕 1만 3500원 접힐 언덕과 뿌러진 덩어리 1만 3500원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5길 57 @abandoned.sandwich



Localstitch  
 정기  
 2주  
 1주

**경의선 숲길, 한 걸음 더**  
 떠먹는 케이크가 유명한 비건&글루텐프리 베이커리 '지구제과'. 각 디저트 옆에 재료와 원산지를 적어 두었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 믿음직스럽다. 하루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예약 가능하다.

# 꽃길 따라 강릉 산책

벚꽃 축제를 앞둔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 본다. 이석제 강릉시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 담당이 경포호수부터 솔올미술관까지, 이달에 가야 할 장소를 엄선했다.



## GANG NEUNG

### 1 휴식이 필요한 당신에게

당일치기부터 한달살이까지

“일상의 시름, 피로, 권태, 우울... 모든 걸 저 바다에 떨쳐 버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에 쥐어 보세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순두부처럼 수수하고 말간 이 도시는 자극적이거나 화려한 여느 여행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산과 바다, 깨끗한 공기와 새파란 하늘, 고향 같은 푸근함과 따스함이 강릉의 매력이죠.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2시간 만에 주파하는 KTX 열차 덕에 접근성이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아끼지 않는 상점과 식당이 하나둘 생겨나 새로운 볼거리도 늘어났어요. 그러니 연차나 반차를 이용해 워케이션을 시도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교통난과 미세먼지, 온갖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행자에게 한달살이를 권합니다. 시내 곳곳의 편의 시설과 숨은 예술 공간, 풍부한 문화유산 덕분에 한 달이 하루처럼 느껴질 거예요.”

### 2 봄꽃이 그리운 당신에게

강릉 경포 벚꽃 축제

“벚나무가 늘어선 그늘을 따라 느릿느릿 산책하는 봄날, 세상 부러울 게 없겠죠. 2024 강릉 경포 벚꽃 축제가 개화 시기에 막을 올리니, 행사 기간에 맞춰 강릉을 방문해 보세요. 축제 무대인 경포대는 관동팔경으로 꼽는 강원도의 자랑입니다. 벚꽃이 함박눈처럼 흩날리는 경포대에서는 푸른 빛으로 칠랑이는 동해와 지름 5킬로미터에 달하는 경포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죠. 그뿐만이요. 주변엔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아르떼뮤지엄 강릉, 경포 가시연습지 등 강릉을 대표하는 굵직한 명소가 위치해 두루 살피기 좋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낭만을 더할 근사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 머지않아 경포호 주변이 떠들썩하겠네요.”



### 3 부지런한 미식 여행자에게

초당 순두부와 강릉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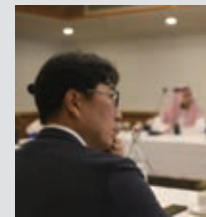
“음식은 여행의 축복이죠. 경포호 주변에 축제 여행자를 위한 먹거리 부스를 마련할 테지만, 강릉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근처 초당 순두부 거리에서 건강하고 담백한 요리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짬뽕 순두부부터 맑은 두부 전골까지 모든 여행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거든요. 그로부터 멀지 않은 안목해변 주변도 미식 여행자가 모여드는 동네인데, 특히 공항대교 건너편에 모여 있는 감자적(감자전의 영동 방언)과 웅심이 식당을 강력 추천해요. ‘강릉 하면 감자, 감자 하면 강릉’이라는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후식으로는 커피만 한 게 없지요. 남향진해변, 안목해변, 송정해변으로 이어지는 거리엔 전망 좋은 카페가 차고 넘칩니다.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빼어난 풍경, 훌륭한 커피를 경험합니다.”

### 4 작품과 작품 사이 당신에게

강릉 미술관 산책

“해마다 강릉에서 국제 예술제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은 지역 작가를 발굴하며 국제 미술계와 상호작용하는 교유의 장으로, 지난해에는 강릉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강릉의 특징을 담은 공간을 조망해 호평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행사 역시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예술을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지난 2월 개관한 강릉의 새 공공 미술관인 솔올미술관 방문 계획을 세우시길요. ‘소나무가 많은 고을’이란 뜻을 지닌 솔올이란 이름은 미술관 일대를 이르던 옛 이름입니다. 현대 건축 거장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사무소 마이어 파트너스가 설계한 건물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데다, <루치오 폰타나-공간, 기다림> <In Dialog: 객인식> 등 울림을 주는 전시를 선보입니다.”

#### [ 여행 안내자 ]



#### 이석제

강릉시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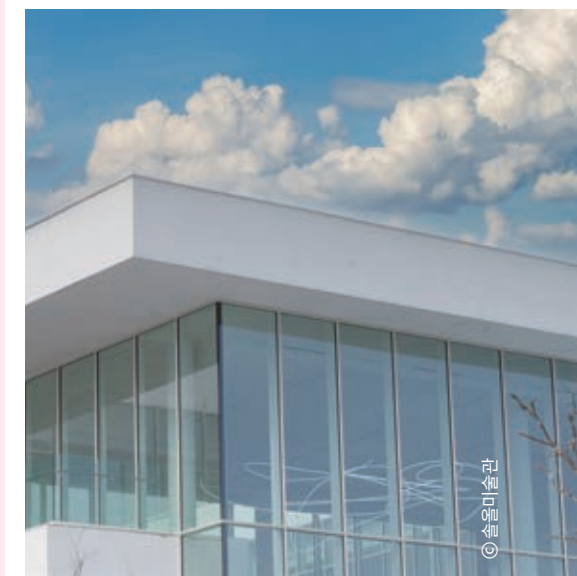
“살기 좋은 도시, 여행하고 싶은 도시 강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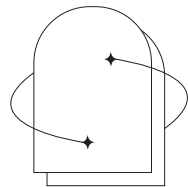


### 5 카페 & 상점 '프로 즐석러'에게

명주동 & 교동 골목 탐방

“강릉 사람이 사랑하는 강릉 여행지, 바로 명주동입니다. 과거 강릉시청이 자리하던 명주동 원도심에는 오늘날 복원을 마친 강릉대도호부 관아와 칠사당,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소개하는 명주예술마당, 옛 건물을 개조한 매력적인 카페가 자리합니다. 모든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이곳만의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지요. 요즘 떠오르는 골목 여행지는 단연 교동입니다. ‘소품 숲 투어’를 위해 이곳을 찾는 여행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테마로 한 엽서, 패브릭, 도자기 등 다양한 소품을 파는 디자인 상점이 임영로를 중심으로 줄지어 있으니 취향에 맞는 물건과 공간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 보세요.”





• EXHIBIT •

**<새벽부터 황혼까지- 스웨덴국립미술관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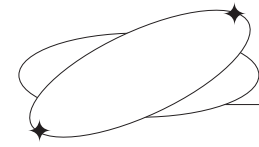
→ 서울 → 03.21~08.25

한국-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아 스웨덴국립미술관과 마이아트뮤지엄이 특별전을 공동 기획했다. 스웨덴 '국민 화가' 칼 라르손을 포함해 한나 파울리, 안데르스 소른 등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예술가 41명의 명작 79점을 눈에 담는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는 19~20세기에 확립된 북유럽 특유의 화풍과 배경을 조명한다. 스웨덴 최대 규모 미술관이 소장한 원화를 직접 만나는 기회다.

장소 서울 마이아트뮤지엄 문의 02-567-8878



© Nationalmuseum Stockholm



• SHOW •

**<2024 통영국제음악제>**

→ 통영 → 03.29~04.07

통영국제음악제가 '순간 속의 영원'을 주제로 돌아왔다. 지난해 예술 감독이었던 세계적 작곡가 진은숙이 기획을 맡았다. 상주 작곡가로 는 헝가리의 거장 페테르 외트비시가 참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 파로 음악제 전체가 취소된 해에 초연 예정이었던 '시크릿 키스'와 '오 로라'를 처음으로 소개한다.

장소 경남 통영국제음악당 문의 055-650-0400



• FESTIVAL •

**제26회 논산딸기축제**

→ 논산 → 03.21~24

'논산 딸기와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축제를 펼친다. 비옥한 토양, 맑 은 물 등 최적의 생장 조건에서 자란 논산 딸기는 적당한 당도와 향이 매력적이다. 해마다 큰 사랑을 받는 '딸기 수확 체험'과 지난해 인기 를 끈 '딸기 디저트 카페'가 올해도 이어진다. 육군항공학교와 함께하 는 헬기 탑승 체험, 헬기 전시 프로그램은 논산의 특화 콘텐츠다.

장소 충남 논산시민가족공원, 시민운동장 일원 문의 041-730-2928



# what'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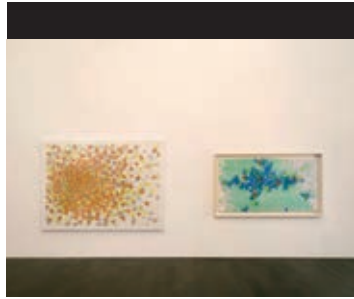
• EXHIBIT •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

● 부산 ● 02.24~07.07

지역 소멸 위기를 이야기하는 시대,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도식에서 벗어나 로컬리티의 의미를 탐색하고 새롭게 정의해 본다.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실험실 C를 포함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52개 팀의 게임 미디어, 영화, 퍼포먼스, 설치 등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한다.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문의 051-220-7400



• EXHIBIT •

**<In Dialog: 광인식>**

● 강릉 ● 02.14~04.14

세계 미술과 한국 미술을 연결하고자 하는 서울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시 프로젝트 '인 다이얼로그(In Dialog)'. 1980년대까지 일본 미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한 광인식의 작품을 첫 번째로 소개한다. 돌, 유리, 철판 같은 일상적인 재료를 깨트리거나 뚫어 특수한 성질을 탐구한 회화 및 조각 20점을 선보인다.

장소 강원도 강릉 서울미술관  
문의 033-641-3376



• SHOW •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 대구 ● 03.22~23, 29~30

근대 오페라의 시초라 평가받는 글루크의 대표작이다. 신의 경고를 어겨 영원히 아내 에우리디체를 잃는 원작과는 결말이 다르다. 소프라노 조지영을 비롯해 정상급 실력의 성악가가 극을 이끈다. 천국, 지옥, 지상의 다채로운 무대 전환과 현대무용이 어우러져 눈과 귀가 즐겁다.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문의 053-666-6000



• FESTIVAL •

**2024 고령 대가야축제**

● 고령 ● 03.29~3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의 웅장한 절경과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연출한 주제관을 기획했다. 지산동 44호분을 재현해 당시 무덤 축조 방식도 보여 준다. 가야금의 고장답게 가야금 100대가 연주하는 음악이 축제장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장소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 일원  
문의 054-950-6424



• SHOW •

**<그때도 오늘>**

● 서울 ● 03.15~05.26

1920년대 부산, 1940년대 제주도 등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4개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독립, 평화, 민주주의의 같은 고귀한 가치를 위해 싸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2인극으로 풀어냈다. 그들이 지킨 '오늘'을 되짚어 보는 작품이다.

장소 서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문의 02-744-4331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3월 25일~31일)

## 피어나는 상상, 또 하나의 마법 마녀코믹스

대한민국 최강 만화 잡지 <아이큐점프>와 최고 순정 만화 잡지 <윙크>의 명성 그대로! '마녀코믹스'가 선사하는 신박한 재미와 진한 감동을 직접 느껴 보세요!

**거북이는 무한정주!**

**인생작 정주행은 '마녀코믹스'에서!**

- #코믹진 윙크
- #첫 달 무료+보너스 물약
- #무제한 감상
- #월 3,900원 무제한!
- #10년치 인생 로맨스
- #베스트셀러
- #전편 연속 감상
- #마코 독점 공개
- #고품격 웹소설
- #세상의 모든 로맨스
- #이제 웹툰도 무제한!



마녀코믹스

마녀코믹스를 검색하세요! 🔍





# 파과

어린 조각

20대

여자

킬러

## 몽그러진 과일

**Q. 반갑습니다. 뮤지컬 <파과>와 맡은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A. 배우 유주혜입니다. <파과>는 구병모 작가가 2013년에 출간한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입니다. 평생을 킬러로 살아 온 조각은 노년에 이르러 그동안 외면한 인정, 연민을 뒤늦게 인지하며 모순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얼룩진 과거를 회상하던 그는 결국 자신 앞에 놓인 현재를 살아가기로 결정하죠. 저는 조각의 10대와 20대를 아우르는 '어린 조각' 역을 맡았습니다. **Q. 캐릭터 분석에도 많은 노력을 쏟으셨을 듯합니다. 어린 조각은 어떤 인물인가요?** A. 원작에 드러난 어린 조각은 물론, 조각이라는 캐릭터에도 집중했어요. 킬러의 삶을 선택한 시점과 이유,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서사를 따라가며 깊이 고민했죠. 작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은 단연 무술 액션입니다. 조각이 타고난 신체 감각을 가졌다는 설정 때문이에요. 킬러가 되려고 고군분투하는 어린 조각의 모습이 무대에서 펼쳐지기에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Q. 전작 <식스 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네요.** A. 이번 작품은 감사하게도 <파과>의 지나 연출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합류했어요. 제가 어딘가 가려하면서도 강한 매력이 있어서 어린 조각 역에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역할이라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원작에 끌리기도 했어요. **Q. 어린 조각과 관련한 뮤지컬 넘버도 궁금합니다.** A. 혼자였던 조각을 거두고 킬러의 소질을 다듬어 준 류를 생각하며 마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선율의 곡이 떠올라요. 어린 조각에게 스승이자 동료인 류는 특별한 존재거든요. <파과>의 음악은 웅장했다가 때로는 날카롭고, 어느 순간 따뜻하기도 하답니다. 멋진 넘버의 향연, 기대하셔도 좋아요! **Q. 최근 애니메이션 <위시>에서 성우로도 활동하셨죠.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가 또 있나요?** A. <위시>의 아사 역을 더빙했습니다. 이후 성우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 녹음 날이 되어서야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더빙 작업에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작품에서는 강렬한 악당 역할도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에요. 제 일상과 출연한 작품의 비하인드를 담은 채널 이름은 '주라기 공원'입니다. '주라기'는 '주혜 바라기'의 줄임말이에요! **Q. 유튜브 채널에 여행 브이로그도 업로드하고 계시네요. <KTX매거진> 독자님께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A. 전북 정읍을 추천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했거든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봄에 방문했는데, 이 계절에도 놀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쌍화차 거리에서 따뜻한 쌍화차도 마셔 보세요.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K**

유주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뮤지컬학을 전공한 후 2008년 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로 데뷔했다. 뮤지컬, 연극,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탄탄한 연기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뮤지컬 <파과>에서 노년에 접어든 킬러 조각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

## 사라지고 부서질 모든 것에

60대 여성 킬러의 삶을 다룬 뮤지컬 <파과>. 조각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 유주혜와 대화를 나눴다.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3월 11일~17일)

# 봄으로 가는 길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북 안동에 새겨진 한국 정신문화의 역사를  
더듬어 시간 여행을 했다.

# 인종



陶山書院

典教堂

고요하고도 포근한 서원을  
한참 동안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포얼마간은  
눈으로 쓸어 본다.



# 도산서원

KTX 중앙선이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열차표를 예매했다. 여행의 목적지로 찍은 곳은 중앙선 종착역이 자리한 경북 안동이다. KTX-이음이 서울에서 안동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인간의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과거 이토록 짧은 시간에 지역을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억압과 탈취로 까맣게 칠해진 일제강점기, 시인 이육사는 ‘광야’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의 시처럼 혹독한 추위가 들이닥쳐도 끝내 희망의 씨를 뿌렸던 이들이 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전, 선조들이 남긴 자취를 찾아 나섰다.

## 학문을 향한 꿈, 도산서원

앞은 물이 흐르고, 장엄한 산이 뒤를 지키는 배산임수의 명당. 서원은 그런 공간에 위치한다.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을 벗으로 삼아 오직 학문과 정신 수양에 정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안동은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안동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을 돌이나 보유했다. 그중 퇴계 이황의 숨결이 깃든 도산서원으로 간다. 길 오른쪽에 심은 향나무가 줄지어 길을 안내한다. 자박거리며 흙바닥을 밟고 나아가자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새긴 비석이 도산서원에 온 이를 반긴다. 맹자와 공자의 고향이라는 뜻이다. 학문에 힘썼던 두 학자의 고향이라 칭할 만큼 도산서원은 이황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리학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곳이다.

1501년 안동에서 태어난 이황은 생원시, 진사시를 거쳐 서른넷이 되던 해 과거에 급제해 정계에 발을 들인다. 승문원권지부정자로 벼슬을 시작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힘썼으나 사화로 정세가 어지러웠고, 학문에 뜻을 둔 그는 병을 구실로 여러 번 관직을 마다한다. 정치에서 손을 떼 후 57세에 고향 안동에서 행한 것이 바로 도산서당을 짓는 일이었다. 터를 정했을 뿐 아니라 강의가 이루어지는 서당, 제자들이 머무는 기숙사인 농운정사 등을 손수 설계하기까지 했다.

늙은 왕버들 두 그루가 지키는 서원 입구, 뒤를 돌아 향나무길 너머 말간 안동호가 잔잔하다. 안동호 가운데 섬처럼 솟은 시사단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황이 갈고닦은 학문과 그의 정신을 높이 산 정조는 도산서원에서 특별 과거 시험인 '도산별시'를 열었는데, 시사단은 이를 기리기 위해 단을 쌓고 세운 기념비다. 아쉽게도 1976년 완공한 안동댐 때

날이 온화해지면 매화는  
꽃봉오리를 피워 내 봄을 알릴  
것이다. 도산서원에 도파사로는  
햇살이 든다.



퇴계 이황이 설계한 도산서당과 그를 배향하는 공간이 공존하는 도산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문의 054-856-1073



문에 수심이 깊어져 물이 빠지는 때에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입구를 지나 도산서원으로 들어서자 고요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가 감돈다. 빛바랜 목재가 아늑한 느낌을 주는 농운정사와 도산서당을 살피고, 후세가 이항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은 서원으로 향한다. 도산서원은 진도문을 기준으로 선생이 생전에 기거하며 후학을 길렀던 공간과 그를 기리는 배향 공간으로 나뉜다. 강학 공간으로 사용해 온 전교당에는 당대 명필가인 한석봉이 선조의 명을 받고 직접 쓴 현판이 걸렸다. 왕이 친히 편액을 내린 사액서원이니 당시에도 도산서원의 가치와 명성이 대단했으리라. 건물 구조, 현판, 배치까지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 없다. 서원을 한참 동안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또 얼마간은 눈으로 쓸어 본다. 서당을 나서는 길. 양옆을 꾸민 모과나무와 매화나무가 들어온다. 아직 가지뿐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제 막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참이다. 퇴계 선생이 사랑해 마지않던 꽃이 매화라 한다. 선생의 매화 사랑은 대단했는데, 이를 증명하듯 도산서원 곳곳에서 매화나무를 볼 수 있다. 그가 사용했던 벼루나 의자에도 매화를 새겼을 정도다. 날이 온화

## 오미마을

해지면 매화나무는 어김없이 꽃봉오리를 피워 내 가장 먼저 봄을 알릴 것이다. 마침 도산서원에도 따사로운 햇살이 든다.

### 스물네 개의 빛이 머무른 마을

안동에는 예부터 자리를 지켜 온 양반가 집성촌이 군데군데 자리한다. 풍산읍 오미마을 역시 조선 시대부터 풍산 김씨 집성촌으로 이름 높았다. 마을이 배출한 인재 또한 여럿이다. 1630년, 김대현의 여덟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그중 다섯은 대과를 통과하는 괄목할 만한 일이 벌어지자 인조가 '팔연오계지미(八蓮五桂之美)'라 하며 크게 칭찬했고, '오미'라는 마을 이름을 내린다. 조선 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에 오미마을은 더욱 빛을 발한다. 김재봉, 김지섭, 김응섭 등 무려 스물네 명의 독립투사가 이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이다. 호젓한 마을에는 허백당 종택, 풍산 김씨 영감택을 포함해 네 채의 고택이 자리한다. 고택끼리 멀리 떨어지지 않아 20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본다. 눈여겨 살필 곳은 마을회관 맞은편의 학암고택. 독립운동가 김재

오미마을 중심에 자리한 학암고택은 독립운동가 김재봉 선생의 생가다. 사랑채, 부엌 등을 고스란히 보존해 경상북도 지역 사대부 가옥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오미광복운동기념공원 기념탑을 둘러싼 석각에는 김지섭, 김재봉, 김응섭 등 오미마을이 배출한 독립 투사 24인의 업적을 적어 놓았다.



봉 선생의 생각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여전히 단아한 멋이 느껴진다.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중, 한 마을 주민이 학암고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자세히 보세요. 위로 솟은 굴뚝이 하나도 없어요. 밥 짓는 연기가 마을에 퍼지는 것을 염려해 굴뚝을 밑으로 냈어요. 작은 것이라도 과시하지 않으려는 선비의 미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풀 한 포기도 긍휼히 여기는 선비가 동고동락하는 마을 사람을 어찌 외면할까. 누군가가 숨겨 둔 따뜻한 비밀을 발견한 것만 같다.

키보다 조금 높은 담장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언덕을 오른다. 아래에서 희끗하던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로 솟은 검은 탑에 ‘오미광복운동기념탑’이라 새겼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오미마을 출신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오미광복운동기념공원이다. 풍산 김씨 문중에서는 2008년 작은 동산에 기념탑과 정자를 세우고, 후손에게 전할 타임캡슐을 탑 아래에 묻었다. 캡슐에는 풍산 김씨 세보와 마을 관련 서적, 사진, 오곡 종자 등을 담아 500년 뒤인 2508년 열어보도록 했다.

탑을 둘러싼 석각에도 빼곡하게 글씨가 들어찼다. 찬찬히 내용을 읽는다. 나라를 빼앗긴 후 만주로 망명한 일부 1919년 독립만세운동에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경북 안동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2024년 3월 2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한 분, 항일 교육에 앞장선 분... 각자 다양한 항일 활동을 펼쳤으나, 설명 끝자락에는 대부분 같은 문구가 쓰였다.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름." 아, 무언가 철렁 내려앉는다. 눈으로 읽기만 했을 뿐인데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자유로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이들을 생각한다. 감히 그들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한 채, 마음만 먹먹해진다.

### 일제가 남긴 상처, 임청각

여기 독립에 생을 다 바친 안동인이 또 있다. 이상룡 선생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부터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선생을 포함해 그의 일가족, 나아가 후손까지도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으니 집안 전체가 나라에 헌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1년, 선생은 식솔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다. 이후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될 자치 기구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의 초석인 신흥강습소를 세우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는 등 굵직한 업적을 이뤄 낸다. 일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도모하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고, '이상룡 집안의 맥을 끊어야 한다'라는 비인간



## 임청각



현재 임청각은 복원 사업으로 관람 및 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청각 작은 전시관'은 개방한다.  
문의 054-859-0025





적인 이유로 생가 임청각을 관통해 중앙선 철길을 건설한다. 이때 행랑채 등을 철거하며 '99칸 집'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가옥이 절반 이상 훼손된다. 뼈아프고 절망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안동시가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철길을 뜯어내 길을 정비하고 임청각 내부 역시 복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복원이 끝난 후 방문자가 경험할 다양한 체험을 구상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밥상을 상상하고 직접 맛보는 체험, 등불을 만들어 어둠이 내린 임청각을 산책하는 체험 등을 준비 중이죠." 문화유산 보호 시민 단체인 안동문화지킴이 김호태 이사장이 말을 마치고 한편에 꾸민 '임청각 작은 전시관'으로 안내한다. 선생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시민 단체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일생과 그의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전시를 천천히 감상한 후에 오른편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기와지붕이 'ㅁ' 자 형태로 놓여 그 사이로 비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안락함이 느껴지는 공간.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간절한 소원을 하늘에 올려 보냈겠다. 새하얀 구름이 지붕 위를 떠간다.

## 경상북도



## 건네받은 불씨,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안동 곳곳에서 모은 역사의 조각을 가지고 여정을 마무리할 장소로 간다. 펄럭이는 태극기를 든 남자현 선생 동상 뒤로 한옥의 건축 요소를 활용한 기념관이 예스럽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의 전시관이 정신을 가다듬게 한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크게 경상북도 독립운동을 개괄적으로 다룬 독립관, 안동 전통 마을의 항일 투쟁에 초점을 맞춘 의열관으로 나뉜다.

전시 1관인 독립관부터 둘러본다. 1894년 경복궁을 침입한 일본군에 반발해 봉기한 갑오의병을 시작으로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투사의 이름을 상세히 소개했다. 의병 항쟁, 목숨으로 항거한 자정 순국, 의열 투쟁, 6·10만세운동, 여성 독립 열사... 유물과 기록이 말해 주는 51년간의 싸움에 절로 숙연해진다. 일제가 자행한 고문 중 하나인 벽관 고문 체험 공간 앞에서 멈춰 선다. 움짱달짝 못 한 채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을 이름 모를 사람들. 전시관에 재현한 벽관은 실제보다 더 크게 제작했다는 사실에 말을 잃는다.

## 독립운동기념관

침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서다.

이어지는 전시는 실감형 콘텐츠,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배치해 관람객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관의 백미는 벽 한쪽을 차지하는 거대한 스크린에 재생하는 미디어아트다. 스크린이 잘 보이는 의자에 앉아 영상을 감상한다. 이상룡 선생이 임청각을 등지고 만주로 망명해 경학사, 백서농장, 신흥강습소 등을 세우는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흑백으로 표현한 그들의 행보가 처절하고 숭고해 한동안 여운을 곱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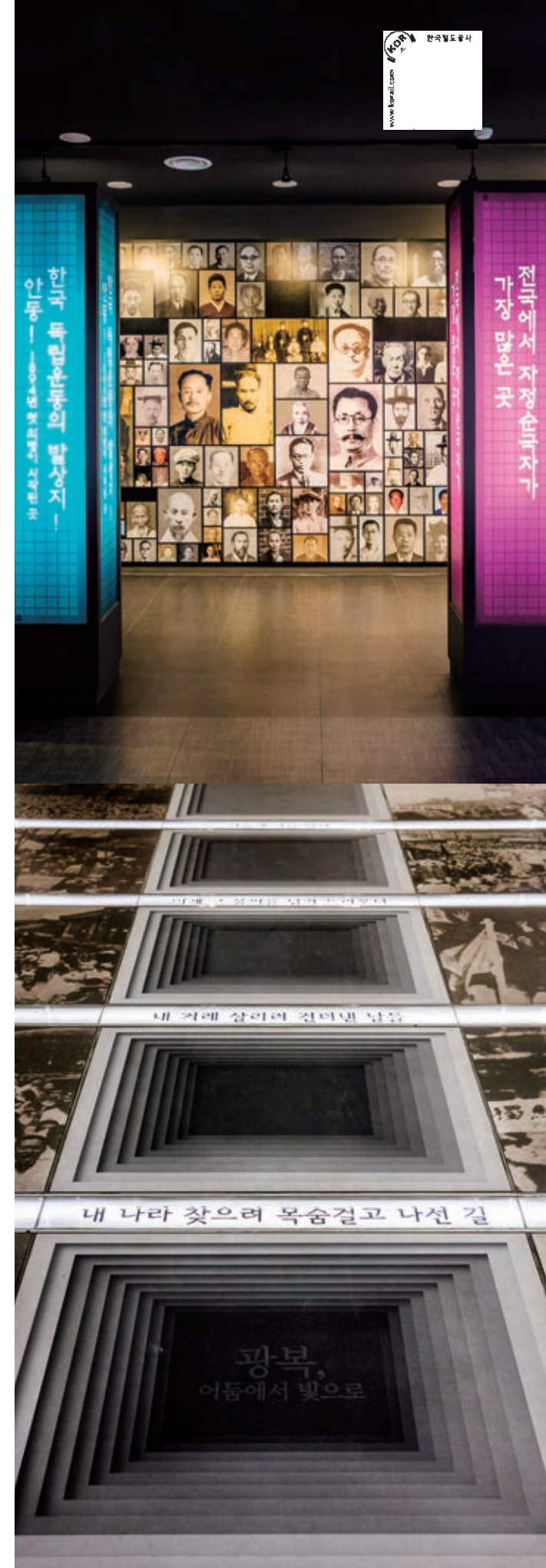
관람을 마친 후 전시관을 나가는 길, 어두운 공간에 발을 들이자 차례로 바닥에 불이 들어오며 문장이 하나씩 나타난다. “내 나라 찾으려 목숨 걸고 나선 길/ 내 겨레 살리려 견뎌낸 날들/ 이제 그 불씨를 넘겨드리오니/ 가슴에 가득 담아/ 새 길을 열어 가소서!” 걸음마다 떠오르는 뜨거운 문장을 눈으로 하나씩 주워 담는다. 항상 들여다보지는 못 해도 그들이 넘긴 소중한 불씨는 언제까지나 마음속 어느 곳에서 꺼지지 않은 채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눈이 녹는다. 오래전 누군가 뿌리고 간 씨앗이 자유로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1945년 8월, 빛을 되찾기 전까지 수많은 이가 간절히 원했을 봄. 머지않아 그 봄이 곧 안동을 따사롭게 품을 것이다. ㉔

그들이 넘긴 소중한 불씨는  
언제까지나 마음속 어느 곳에서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의열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기획전 <숫! 나는야 비밀요원 남자현>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54-820-2600





# Embracing Spring in Andong

I traced the history of the Korean spirit in Andong, spanning from the Joseon era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Upon hearing the delightful news of the extension of the KTX Jungang Line to Seoul Station, I promptly purchased a train ticket to Andong in Gyeongsangbuk-do, the terminal station of the central line. There was also something I had to witness and experience firsthand before welcoming the new season. Despite the dark shadows cast by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harsh winter that unfolded, there were those who planted seeds of hope for independence. I set out to discover their heroic traces.

## Dosan-seowon: The Pursuit of Knowledge

Ahead, a river flows, and majestic mountains guard the rear, creating a picturesque setting for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a revered place associated with the profound teachings



of the scholar Yi Hwang. Typically, such academies are situated in spaces untouched by worldly temptations, dedicated solely to the pursuit of learning and spiritual cultivation. Andong is fortunate to house not one but two such academies, with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being attributed to the influence of Yi Hwang, a philosopher and scholar.

Upon entering the academy, you will be enveloped by a serene yet warm atmosphere. The Jindomun Gate separates the area where Yi Hwang nurtured his disciples and the area dedicated to commemorating him through ritual ceremonies. The royal charter bestowed by the king underscores the immense value and reputation that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held even back in the days.

## A Village of 24 Heroes

In Andong, Omi Village was the clan village of the Pungsan Kim famil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village has produced numerous talented individuals throughout its history. In 1630, when all eight sons of Kim Dae-hyeon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King Injo praised this achievement, and bestowed the name “Omi” upon the vill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mi Village shone even brighter, as 24 independence fighters were born and raised here.

Within this tranquil village, four traditional houses, including Heobaekdang Head House and the Pungsan Kim clan’s house, stand proudly. Notable among these is Hagam House, located across from the village community hall. It was the birthplace of Kim Jae-bong,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socialist principles. As I strolled around, a local approached and asked if I had noticed anything peculiar about the house. “Take a closer look. You won’t find a single chimney sticking up. They lowered the smokeholes



to the ground, so when the cooking smoke rises, it won’t make the villagers hungry. It’s the nobility’s consideration for the common people.”

## The Spark of Freedom

With fragments of history gathered from all around Andong, I head to the last place on my itinerary. Behind the statue of independence activist Nam Ja-hyeon is the 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I start by exploring the Independence Hall. From the Gabo Reform in 1894, sparked by the invasion of the Japanese army into Gyeongbokgung Palace, to the liberation in 1945, the exhibition introduces independence movements and patriots in the region. The artifacts, records, and more speak volumes about the 51-year-long struggle.

As I head out of the exhibition hall, I feel a spark burning somewhere deep within. The seeds sown by our ancestors have taken root and flourished over the years. As we eagerly await the arrival of spring, Andong is poised to embrace warmth once again. 🌸



# 안동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 즐길 거리



**한국문화테마파크** 16세기 조선 시대로 여행을 떠난다. 이곳은 유교 문화와 조선 시대 역사를 주제로 꾸민 테마파크다. 공원 안에 세운 가상의 마을 '산성 마을'은 성곽길, 군영, 저잣거리 등을 조성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3D 영상으로 수성 전투 게임을 즐기는 의병체험관, 전통 한복을 입고 인생 사진을 남기는 선비속녀변신방, 비격진천뢰를 조립해 갇힌 방에서 벗어나는 폭탄탈출방 덕에 아이는 물론 어른도 흥미진진해 한다. 산대극장, 설화극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감상한다.

문의 054-857-9916



**명인안동소주** 반남 박씨의 가양주로 500년 전통을 이어 온 명인안동소주를 맛본다. 25대손 박재서 명인은 불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중탕식 증류로 소주를 빚는다. 종류한 술을 100일 이상 숙성시켜 쌀 특유의 탄내가 없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소주는 본래 알코올 도수 45도지만, 최근 누구나 쉽게 맛보도록 35도·22도·19도 등 다양한 도수의 소주를 생산한다. 양조장에서는 소주 시음과 안동소주를 이용한 칵테일 만들기, 막걸리 빚기, 누룩 발효 음료 만들기 등 체험도 가능하다.

문의 054-856-6903

### 먹거리



**메밀꽃피면** '미오기집밥'을 마주하는 순간, 상다리가 부러진다. 관용구가 절로 생긴다. 이미옥 대표의 이름에서 딴 메뉴는 특제 양념을 바른 황태구이를 중심으로 강황밥, 캐슈너트 미역국, 육전, 각종 제철 나물과 과일 등으로 구성했다. 상차림 전 제공하는 식전 빵부터 디저트인 강정까지 모든 음식은 직접 요리한다. 두릅·명이나물·가족나물 등은 일월산에서 채취했고, 쌀과 배추는 가족이 농사지어 수확한 것만 사용하니 상에 올라온 음식은 보약 그 자체다. 쫄깃한 메밀국수도 '메밀꽃피면'의 스테디셀러다.

문의 054-843-1253



**카페서원** 도산서원을 방문하는 여행자의 목을 축여 줄 다정한 한옥 카페다. 50년 넘은 한옥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신다. 메뉴판에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서원라테'. 언뜻 보기에는 일반 라테와 다르지 않지만, 한 모금 맛보면 밀려드는 고소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라테에 시럽과 크림을 올린 메뉴인데, 주인장이 캐러멜·바닐라·아몬드 시럽을 잘 배합해 풍미를 끌어올렸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이에게는 경북 문경에서 공수한 오미자를 넣은 오미자 에이드나 직접 달인 대추고로 진한 맛을 낸 대추차를 추천한다.

문의 0507-1379-5312



GOOD DESIGN  
AWARD 2023

# 피로 해소가 필요한 봄, 파나소닉 EP-MAN1의 계절

봄바람 불어오니 야외 활동이 잦아진다. 마사지 전문가의 손길을 재현한 파나소닉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N1의 놀라운 기술력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인다.

코끝에 봄 내음이 밀려들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달리기, 트레킹, 등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당신에게 심신을 복돋울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재현한 전신 안마의자, 파나소닉 신제품 EP-MAN1을 경험하는 것이다. 최신 기술로 목과 어깨, 팔, 허리와 엉덩이, 다리와 발바닥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하이퍼앤드 안마의자가 지치기 쉬운 계절의 생체리듬을 탄력적으로 잡아 주기 때문이다.

### 편안한 좌석, 한층 넓어진 마사지 도달 영역

신제품 EP-MAN1의 가장 획기적인 진화는 마사지 구동 영역을 확장한 SJ 프레임 적용에 있다. 상하좌우 총 630개 포인트를 감지한 마사지 볼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목부터 척추, 엉덩이에 이르는 신체 부위를 골고루 주무르며 긴장을 풀어 준다. 자사 기존 제품 EP-MAK1이 감지하는 포인트가 총 540개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유의미한 변화다. 한결 넓고 편안하게 개선한 좌석도 눈여겨봐야 한다. 셸(shell) 형태로 몸 전체를 온전히 감싸는 디자인은 의자에 앉은 순간부터 휴식에 쉽게 몰입하도록 돕는다. 130도에서 170도까지 등받이를 기울이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신체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사용자의 키에 따라 조절 가능한 발판, 폭신하고 아늑한 탈착 쿠션 등 완벽한 이완의 시간을 위한 디테일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 NEW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진화 EP-MAN1

- 1 새로운 프레임 마사지 볼 도달 부위를 목에서 척추,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장한 SJ 프레임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2 전신을 감싸는 셸 디자인 온몸을 감싸는 셸 형태 좌석이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해 한층 아늑한 휴식을 제공한다.
- 3 리얼 프로 3D 마사지 기법 10밀리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는 전문가의 섬세한 마사지 기법은 파나소닉만의 독창적 기술이다.
- 4 나노이 & 블루투스 스피커 탑재 일반 이온의 1000배 가까운 수분을 간직한 나노이 입자가 기분을 환기하고, 내장된 블루투스 스피커가 귀를 즐겁게 한다.



### 파나소닉 안마의자 봄맞이 이벤트

MAK1 | MAJ7 | MAF1 | MA32 | MAC9 | MA22 | MA05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봄맞이 이벤트는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기술력을 누리는 기회다. 바로 지금,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과 백화점, 대형 전자 제품 전문점에서 취향과 용도에 맞는 안마의자를 만날 수 있다. 1년 무상 보증 기간에 3년을 추가 제공하는 '1+3년 무상 AS 혜택 이벤트'도 두루 경험해 보자. 기간 3월 1일~31일 문의 1588-8452

### 궁극의 휴식을 위한 최신 스마트 기술

상하, 좌우, 전후로 부드럽게 작동하는 3D 입체 마사지 볼은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총체다. 초당 신호를 2000개 전송해 모터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PFC 엔진 II와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마사지 볼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졌고, 이로써 보다 다양한 마사지 기법을 구현해 냈다. 세라피스트의 노련한 손놀림처럼 약 1센티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는 네 개의 마사지 롤러 또한 섬세하고 꼼꼼한 마사지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 본체에 내장한 블루투스 오디오와 USB 충전 포트를 이용해 음악을 곁들이니 휴식이 더 감미로워지고, 일상은 더 즐거워진다.



# 시간을 달리는 강경

역사의 물길이 굽이치는 비옥한 땅, 충남 논산 강경의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났다.



論山

# 江景

기차의 속도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본다. 언 땅이 풀리고 또다시 짝이 움트는 순간에 감탄하면서.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KTX 호남선 열차는 몇 번이고 산, 물, 들을 헤치며 충남 논산역에 다다른다. 계절의 변화, 자연의 은밀한 생명 활동을 목격하는 기쁨은 기차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작은 특권일 것이다. 남쪽으로 1시간 40분 남짓 달렸을 뿐인데 시간을 거슬러 봄을 만난 기분이다.

오늘날 논산에서 여객열차를 취급하는 기차역은 세 곳이다. KTX가 정차하는 논산역, 최고령 급수탑을 거느린 연산역, 호남선 충남 구간의 마지막 역인 강경역. 세 역이 견뎌 낸 녹록지 않은 세월을 견줄 수는 없어도, 강경역을 품은 강경읍의 역사는 유독 애달픈 데가 있다. 한때 충청도에서 가장 번성한 포구와 시장을 거느렸으나 일제 침탈 기지로서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통과한 땅. 항거의 상흔과 전쟁의 아픔, 옛 시절의 영화가 공존하는 고장. 강경에서 이른 봄 노래를 부른다.

## 금강 즐기기 따라, 조선 시대 강경을 엿보다

강경천 둔치에 자리한 미내다리는 이 여행의 관문이다. 길이 30미터, 너비 2.8미터, 높이 4.5미터 규모의 아담한 구조물이 조선 시대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제일의 다리였다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상기한다. 다리의 내력을 적어 놓은 은진미교비를 토대로 고증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했다는데, 마른 들판 위에 우뚝 선 교각이 아무래도 낯설게 느껴진다.

“미내는 금강 지류인 강경천의 옛 이름이예요. 이 다리를 준공했을 때만 해도 여기까지 미내가 들어찼을 거예요.” 김경란 문화관광해설사가 강바람에 옷깃을 여민 채 말을 잇는다. “호남 사람들은 한양에 가기 위해 꼭 이 다리를 거쳐야 했어요. 원래 직선 형태의 평교였는데, 강경 일대 유지들이 기금을 모아 조선 영조 때 무지개 모양의 홍예교로 개축했지요.” 미내다리는 강경이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기능했다는 증거이자 사료다. 홍예의 종석에 새긴 호랑이와 용 머리도 예사롭지 않다. “정월대보름에 이 다리를 자신의 나이만큼 오가면 액운을 피하고 소원을 이룬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답니다.” 나이만큼 횡수를 채울 자신은 없었지만 잠시나마 답교놀이의 재미를 맛보기로 했다. 반들반들한 돌바닥을 지르밟는 동안 이 다리를 건넌을 무수한 사람을, 삶과 이야기를 상상한다.

강경 땅의 역사를 짐작하게 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다. 이름하여 팔괘정. ‘송자’라 칭송받는 유학자 우암 송시열이 세운 정자로, 금강 즐기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명당에 올라섰다. 스승인 사계 김장생의 강학 공간인 임리정으로 부터 불과 50미터 거리에 위치한다니, 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강경에는 전망 좋은 명소가 여럿이다. 미내다리에 올라 강경천을 바라보거나, 임리정과 팔괘정에서 금강을 마주할 때 일상의 시름이 절로 씻긴다. 팔괘정 뒤편 돌산전망대에서는 읍내와 나루의 풍경을 동시에 조망한다.  
문의 041-746-8502

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모서리 쪽 창문은 안쪽 창문과 달리 아래에 공간을 살짝 띄워 달았어요. 이 높이만큼 방바닥을 높게 돋워서 바깥 풍경이 더 잘 보이도록 고안한 거예요.” 이어지는 설명에 <택리지> 저자 이증환이 이곳에 체류하며 몸을 추스르고 글을 집필했다던 일화도 떠오른다. 단출한 건물 뒤꼍 대숲에 이르자 글자를 새겨 넣은 커다란 바위를 맞닥뜨린다. 늘 푸른 언

덕이라는 의미의 ‘청초안(靑草岸)’, 꿈을 걸어 두었다는 뜻의 ‘몽괘벽(夢掛壁)’은 우암이 손수 각자한 것이다. 삶이 곧 한 시대의 사상이었던 선비의 곳곳한 풍모가 글자 하나하나에 서린 듯하다.

## 골목을 돌고 돌아, 근대의 강경을 경험하다

이제 우리의 타이머는 19세기 말, 강경에 충남 지역 최초로 전기가 공급되던 시점을 가리킨다. “당시만 해도 이곳에 하루 100여 척의 배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어요. 유동 인구는 어림잡아 1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김 해설사에 따르면 이 시기 강경에는 우체국과 은행 등 주요 기관이 앞다퉈 자리 잡았음은 물론,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상점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한다. 다시없을 화려한 시절이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에워싼 일대는 그 시대의 풍경을 아우르는 거대한 디오라마 같다. 특히 구 한일은행 강경 지점에 들어선 강경역사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역 근대 문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논산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강경역, 연산역에도 기차가 다닌다.





화유산 자료와 주민이 실제로 사용하던 여러 가지 기증품을 한데 모아 둔 생활사 박물관으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 1911년 강경에서 영업을 개시한 한일은행 강경 지점은 1913년 지금 위치에 건물을 지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강경의 흥망성쇠를 목격해 온 건물은 장식적인 파사드와 거대한 금고, 낡은 벽체만 남은 창고 터를 통해 당시 강경의 경제적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강경역사관 바로 옆에는 호텔과 유흥 시설을 재현한 '강경구락부'가 위치하는데, 세트장처럼 걸면만 꾸민 건물이 아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실제 영업장이므로 먹고 마시며 쉬어 가기 좋다. 대전과 전북 군산 등 주변 도시가 강경을 앞지른 것은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 무렵이다. 이미 1899년 군산 개항,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강경 포구와 강경장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금강 물길을 통해 집결했던 충청도와 전라도의 미곡이 더 이상 강경을 거치지 않고 반출되는 한편, 일제의 수탈은 하루가 다르게 무자비해졌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10일, 옥녀봉에서 강경 첫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다. 그로부터 4월 7일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최대 1000여 명의 인파가 운집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다. 항일 정신은 1924년 신사 참배 거부 운동으로 이어졌다.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를 이끌던 성도와 강경보통학교 학생들이 참배에 저항했는데, 홍교리 강경성결교회 마당에

세운 신사 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가 이 사건을 널리 전한다. “비석에 돌을새김해 넣은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모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는 거부의 ‘거(拒)’ 자를 의미해요.” 거부라는 단어가 지닌 뜨거움과 단단함을 한 동안 곱씹어 생각한다.

**옥녀봉 가는 길, 오늘의 강경을 맞닥뜨리다**

전쟁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젓갈 시장을 제외하곤 강경의 수많은 사람, 물자, 건물이 버티지 못하고 스러졌다. 번듯하던 한약방, 정미소, 양조장, 기름집, 예식장이 차례로 거리를 떠났다.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흘러 강경은 논산의 소읍이 된다. 다만 풍요로운 물자에서 비롯된 너그러운 마음, 스승을 흠모하는 정신, 자연을 완상하며 노래할 줄 아는 멋과 흥은 이 땅에 오래도록 남아 '강경 사람'이란 정체성과 자부심을 일궈다. 홍교리와 중앙리를 가르는 옥녀봉로는 1919년 3월 옥녀봉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던 이들이 시가 행진을 하던 곳인데, 최근 이 거리에 옛 모습을 재건한 상점이 하나둘 올라서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이다. '광신석유'를 해체 복원한 건물에 입점한 카페 '갱깁'도 그중 하나다. 좌석 한편을 점유하는 커다란 기름통, 두 개의 상량문, 목재 바닥 등에서 지난 세월을 엿본다. “기름을 받아 오라는 심부름을 하러 여기 와 봤다는 손님이 계셔

구 한일은행 강경 지점 건물을 사용하는 강경역사관은 강경 근대 역사 기행의 시작점이다. 옥녀봉 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특별한 예술 공간, 옥녀봉 예술존도 놓쳐선 안 될 관람 포인트. 문의 041-745-3444(강경역사문화연구원)





자연을 완상하며 노래할 줄 아는 멋과 흥은  
이 땅에 오래도록 남아 '강경 사람'이란 정체성과  
눈부신 자부심을 일궜다.



서 놀란 기억이 나요. 건물의 역사를 알아차리는 분들을 만날 때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죠.”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갯갯을 맡게 된 김영찬 대표의 말이다. 갯갯과 비슷한 시기에 입점한 쌀국수 식당 ‘갯뚜누들’, 디저트 카페 ‘멜랑티카페’, 중화요리 식당 ‘홍교리’, 경양식 레스토랑 ‘강경돈까스’가 결성했다는 강경 자영업자 청년 모임의 열정이 이 거리의 환한 앞날을 예비하는 듯하다.

옥녀봉을 오르는 길, 비좁은 골목 한편에 붙은 이정표를 따라 마을 깊숙이 들어서니 말쑥한 일본식 가옥 한 채가 나타난다. ‘소리하는 옥녀봉’이라고 쓴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끼는 이곳은 옥녀봉 예술촌이다. 강경에서 나고 자라 연극배우와 방송작가로 활동해 온 조수연 대표가 조선식산은행 강경 지점 관사를 매입해 지역민 중심의 예술 문화 공동체를 꾸려 나간다. “3년에 걸쳐 건물을 정비한 끝에 현재 모습을 갖췄어요. 강경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95퍼센트가 그대로라 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훌륭하답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할 주민 극단을 결성했어요. 진양조를 창시하고 중고제를 집대성한 강경 출신 소리꾼 김성옥의 이야기를 극화하기로 했지요.” 그의 말마디에 깃든 진심이 봄볕처럼 따스하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서쪽 하늘에 걸린다. 옥녀봉 정상, 아름답리 느티나무 옆에 서서 금빛으로 물든 금강을 바라본다. 저지대인 강경 땅을 한눈에 조망하는 해발 44미터의 옥녀봉은 서녘의 황홀한 일몰을 눈에 담은 최적의 장소다. 시시각각으로 붉어지는 노을을 마주하며 생각한다. 저물었다가도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닮은 강경이라고. ❷

**+ 강경 근대문화역사거리 × 청년 희망 프로젝트**  
논산시에서는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강경 근대문화역사거리에 위치한 미식 공간 다섯 곳은 모두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 중이다. ‘강경 근대 문화거리 청년들’ SNS 계정에서 이들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come\_in9



錦江





시장으로 온 청년들  
 X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 청춘海



강원도 삼척에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 올곧은 청년들이 있다.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 '청춘海(해)'에서 청년 상인의 환한 미래와 마주했다.



##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다,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 청춘해

관동팔경 중 하나이자 최근 국보로 등재된 죽서루, 기암절벽이 눈부신 오십천, 늠름한 삼척항과 동해 바다의 풍광을 차례로 마주했다면 다음 목적지로 추천할 곳이 있다. 바로 삼척 중앙시장이다. 삼척고속버스터미널과 죽서루에서 도보 7분 거리에 불과한 시내 한복판, 싱싱한 해산물과 맛깔스러운 먹거리는 물론 사람과 이야기가 이곳에 모여든다. 1770년경 읍내장에서 출발한 삼척 중앙시장은 1975년에 이르러 오늘날 모습을 갖췄다. 한때 한국 석탄 매장량 약 3분의 1을 차지한 삼척탄전이 이 지역을 인구 3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로 만들었고, 늘어난 인구만

큼 시장 규모도 어엿해졌다. 산업구조 변화와 광업의 쇠퇴가 상인과 손님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오늘날 시장은 영화로운 옛 시절을 기억한다. 그리하여 2019년 12월 27일, 삼척 중앙시장의 부흥을 꿈꾸며 청년몰 청춘해가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도와 삼척시가 머리를 맞대어 상설 시장 건물 2층과 3층 유휴 공간에 청년 점포 20여 개를 마련했다. 패기 넘치는 청년 상인과 삼척 시민, 여행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교유의 장 청춘해. 여기서 발견한 새로운 삶, 싱그러운 창업기를 건져 올린다.

### + 청년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가꾸어 청년몰을 조성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선발해 가게를 내어 준다. 창업과 관련한 경영 교육은 물론 제품 개발 및 홍보, 점포 운영 등 사업 전반을 돕는다. 청년몰 사업으로 청년은 기회를, 시장은 활력을 얻는다.



##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 청춘해 더 알차게 이용해 보세요

### 포토 존

청년몰 곳곳에 자리한 포토 존을 찾아 사진을 남긴다. 2층과 3층을 잇는 계단에 그려진 고래 그림을 비롯,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이 여럿이다.



### 삼척SOS통통센터

아이와 동행한 가족 여행자라면 청년몰에서 식사나 간식을 해결한 뒤 계단에 그려진 고래 그림을 비롯,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이 여럿이다.



### 작은 도서관

청년몰 2층 삼척SOS통통센터와 '노브랜드' 사이에 자리한, 작지만 알찬 서가에 걸터앉아 지친 다리를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즐긴다.



### 이벤트

버스킹부터 플라마켓까지, 청년몰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 흥미진진한 행사를 펼친다. 문의 @sc\_youthmall\_





### #소담곳간



김윤아 대표

청년해 2층 입구에 들어서면 이내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붙든다. 기분 좋게 후각을 자극하는 근원은 수제 과자와 볶은 견과류를 만드는 상점 '소담곳간'이다. 대표 제품은 '오란다'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알알이 동그란 강정이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기본형 오란다가 씨앗, 감태, 콩가루, 추로스, 초콜릿을 얹어 내니 다채로운 풍미가 살아난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오란다가 이곳에선 다양한 맛으로 선보이고 있어요.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즐거움이 색다른 거예요." 김윤아 대표는 20여 년 동안 오란다가 제조해 온 부모님에게서 비법을 전수했다. 질 좋은 조청으로 완성한 쫄쫄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은 이곳 오란다가 특징. 3남매가 모두 가업을 잇는 중인데, 첫째와 둘째가 오일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한편 셋째인 그는 청년몰에 입점해 고객 타깃층을 넓혔다. "창업을 생각했지만 도전이 두려워서 주저하던 시기, 마침 청년몰 입점 모집 소식을 들었어요. 운 좋게 기회를 얻어 지금의 공간을 마련했네요. 선물용·답례용 제품을 판매하기에 맞춤형 점포라고 생각해요." 그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재방문 고객을 만날 때다. "기쁜 일, 축하를 나누는 일에 소담곳간의 제품이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행복할 따름이에요."

☞ 오란다 세트, 견과류 세트, 소담·곳간 세트  
 @so\_damm.25



### #공삼삼돈가스



박영훈 대표

강원도 지역번호 033을 상호로 사용할 만큼 고향 사랑이 지극한 '공삼삼돈가스'의 박영훈 대표. 그는 청년몰 청년해를 이끄는 상인회장답게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지녔다. "매일 오전 이웃 상인들과 나눌 간식을 준비해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여기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궁리하죠." 제주도의 한 돈가스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 그는 다른 일을 할 땐 몰랐던 활기, 즐거움, 애착을 느꼈다고 한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엔 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돈가스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엔 오히려 힘이 났어요. 빈 그릇을 보면 '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벅찼거든요." 언젠가 고향에서 어엿한 식당을 열고 싶었다는 그의 꿈은 청년몰 덕분에 빠르게 실현되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삼척 해변 상권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금액으로 점포를 꾸렸고, 아낀 비용은 질 좋은 재료와 서비스에 재투자해 선순환을 이뤘다. 신선한 돈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니 상인도, 손님도 만족스럽다. "양질의 음식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 있어요. 돈가스는 단 세 종류, 수제·카레·매콤 치즈 돈가스만 준비해 하루 40개만 판매하죠." 소스부터 가니시까지 꼼꼼하게 완성한 한 그릇이 절로 미소 짓게 한다.

☞ 수제 돈가스, 카레 돈가스, 매콤 치즈 돈가스  
 @zero33moneygas





## #온자기



이지예 대표

흔히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 '온자기', 따뜻한 그릇이란 뜻을 지닌 이 상호는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곳을 찾는 모두가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도자를 전공한 이지예 대표는 교내 창업 동아리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방 운영을 꿈꿨다.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공방 자리를 알아보던 차 청년물 입점 모집 공고를 맞닥뜨렸고, 지체할 틈 없이 바로 지원한 끝에 청년해 3층 한편에 아담한 도자 공방 온자기를 꾸릴 수 있었다. 입점 초기에는 머그잔이나 접시 등 테이블웨어 중심으로 작업했으나, 주변 상인과 손님의 의견을 반영해 온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제품을 만들기로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파스텔 톤 토분. 흙으로 만들어 흡수율이 좋은 토분은 식물이 과습으로 시드는 현상을 막아 준다. "원하는 색깔과 질감, 모양을 얻으려고 여러 번 실험을 거친 결과 지금의 토분을 완성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구매 후기가 좋아서 보람이 크답니다." 그는 도자기 클래스를 열어 더 많은 손님과 만나기를 꿈꾼다. "초벌한 도자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페인팅, 토분을 성형하는 물레 체험, 손으로 도자를 빚는 핸드 빌딩 등을 마련했으니 삼척에 오시면 꼭 온자기를 기억해 주세요."

☎ 도자기 페인팅, 물레 체험, 핸드 빌딩  
🌐 onjagi.com



## #네일트리



최유희 대표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는 일. 청년물 입점 5년 차에 접어드는 네일 & 페디큐어 샵 '네일트리'의 최유희 대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손톱과 발톱을 다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곳이 미용 공간 이상이길 바라요. 손님과 체온을 공유하면서 일상을 나누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거든요." 삼척에서 나고 자란 그는 1985년생, 올해 만 39세다.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고향을 지키며 천천히 내실을 다져 왔다. 청년치고 나이가 딱 차이 않았냐는 농담을 건네는 이도 있다는데, 능란한 손놀림과 낯선 방문객의 마음까지 누그러뜨리는 달변은 오롯이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손톱이 옆으로 벌어지며 자라니까 가급적이면 동그랗게 끝을 다듬어야겠어요." "피부색에 맞춰 명도가 높은 분홍색을 발라 볼게요. 잘 어울리네요!" 그의 살뜰한 조언을 듣고 나면 누구라도 귀가 솔깃해질 터. 실력이 실력이니만큼 단골손님도 여럿이다. 무려 아흔 살 어르신도 포함된다. 물론 그에게 손길이 필요한 모두가 특별한 손님이다. "여행 중에 이곳을 찾는 손님에게 발 각질 제거 패키지를 추천해요. 간단한 마사지와 유·수분 팩, 마사지를 해 드리니 피로를 씻어 내기에 좋을 거예요." 삼척 바다처럼 상쾌한 대화, 산뜻한 기분을 선물 받는 시간이다.

☎ 손·발 젤 컬러 및 문제성 손·발톱 관리, 스파루체(발 각질 제거, 유·수분 팩, 마사지)  
📱 @nailtree\_samcheck





# 사랑하여 모으고 마침내는 나누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증관을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다.  
그분은 어떻게 이걸 내놓았을까. 사람도 유물도 아름다워 숨이 막혔다.



1936년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생이 50년 만에 돌려받은 청동 투구는 보물로 지정되었다. 성모병원 초대 원장 박병래 선생은 평생 모은 백자를 1974년 기증했다.



기증관은 4개 전시실로 구성했다. 1실 통로에서는 기증자 이름과 여 록이 흐르다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좋은 것, 거기에 귀한 것,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인 것. 그런 물 품이 내 손에 들어오면 어찌할까. 아껴 간직하고, 수시로 쳐다 보고, 내밀한 기쁨으로 삼다가 반가운 이가 찾아왔을 때 꺼내 어 자랑하겠다. 조선의 역관 이상적도 마찬가지였다. 스승 김 정희가 한양에서 멀고 먼 제주로 유배 가 사람들이 등 돌렸을 때 그는 사제간 의리를 잊지 않고 꾸준히 책을 보냈다. 스승은 '세한도'를 그려 고마움을 표했다. 혹독한 계절에 지킨 신의를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에 빚댄 그림이었다. 서체의 한 세계를 확립한 조선의 명필 추사에게 선물을 받고 떨렸을 기쁨을 생각 한다. '세한도'는 이상적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중국 방 문길에 품고 가서 이름난 학자들에게 보이자 감탄하는 글을 남 겨 주었다. 이상적의 삶은 '세한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유물, 세상에 오로지 하나뿐인 보물이 가득한 곳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이다. 지난 1월 기증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 기증자의 이야기와 유물을 함께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 43만여 점을 소장한 한국 대표 박물관 이다. '국립' '중앙'이라는 무거운 이름값에 걸맞은 오늘날의 박 물관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이가 기증자다. 5만여 점 유물

이 기증자 덕에 박물관으로 와 모두의 보물이 되었다. 박물관 은 개편 작업을 하면서 기증자와 유물을 예우하는 동시에 관람 객이 유물과 기증 사연을 함께 음미하도록 하는 데 힘썼다. “지 측위진에 애즉위진간(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조선의 문장 가 유한준 선생의 글처럼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 면 참으로 보게 된다”. 유물만으로도 소중하고 아름다우나, 그 뒤의 사연 또한 알수록 감탄이 커진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증 관에 발을 딛는다.

4개 전시실로 구성한 기증관 첫 번째 방은 '나눔의 서재'가 맞이 한다. 거대한 장식장에 가지각색 유물을 배치하고, 앞엔 소파를 놓아 수집가의 집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한쪽에 마련한 테이블 으로는 기증자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다. 5분여 분량의 영상에 수집한 계기와 분야,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담았다.

성모병원 초대 원장인 박병래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 교수가 백자 접시를 보여 주었는데 이를 자국 것인지 몰랐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아 박물관과 고미술상을 방문한다. 일본인이 전국을 휩쓸며 한국의 자기를 가져가는 현실을 깨닫고 봉급을 뚝 떼어 구입하기 시작했다. 사명감에 뛰어난 수집은 그의 삶 을 바꾼다. 처음에는 차갑다고 생각한 사기에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고요한 정신으로 바라보다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겼 다. 선생은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50년 동안 골동 수집 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한결 삭막했으리라”라





3실에서는 비슷한 모양의 토기와 자기를 나란히 놓은 기획이 흥미롭다. 곳곳에 배치한 투명 OLED 패널 영상도 전시에 볼거리를 더한다.



고 고백했다. 그가 유물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눈에 선하다. 세상을 떠나기 전 선생은 아무 조건 없이 375점을 기증한다. 아직 한국에 기증 문화가 전무하다시피 한 1974년, 그때 화폐단위로 1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증이였다. 참고로 수년 뒤인 1981년 박물관 유물 구입 1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으니, 선생의 순수하고도 커다란 결단에 말을 잃는다. 이를 알고 나서 백자를 감상한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병, 접시, 사발, 연적. 고아한 유물이 더욱 애뜻하게 다가온다.

방 하나를 혼자 차지한 그리스 청동 투구 이야기도 재미있다. 한국에서 보물로 지정된 유일한 서양 유물이다. 기원전 6세기에 만들었다 추정하는 투구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 몫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국적으로 출전한 한국인이 우승하고 시상대에서 고개를 수그렸기 때문일까. '선수가 비싸고 귀한 기념품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올림픽 규정을 들어 투구는 엉뚱하게도 독일의 한 박물관에 보내졌고, 정작 선생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오랜 노력 끝에 50년이 지난 1986년 투구를 돌려받은 선생은 1936년의 금메달이 민족의 것이었듯 투구 또한 모두의 것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다. 전시실에서는 올림픽 마라톤 우승부터 투구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까지 상세하게 보여 준다. 기증품 하나하나마다 이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기증자가 나는 덕분에 개인의 영광이 모두의 감격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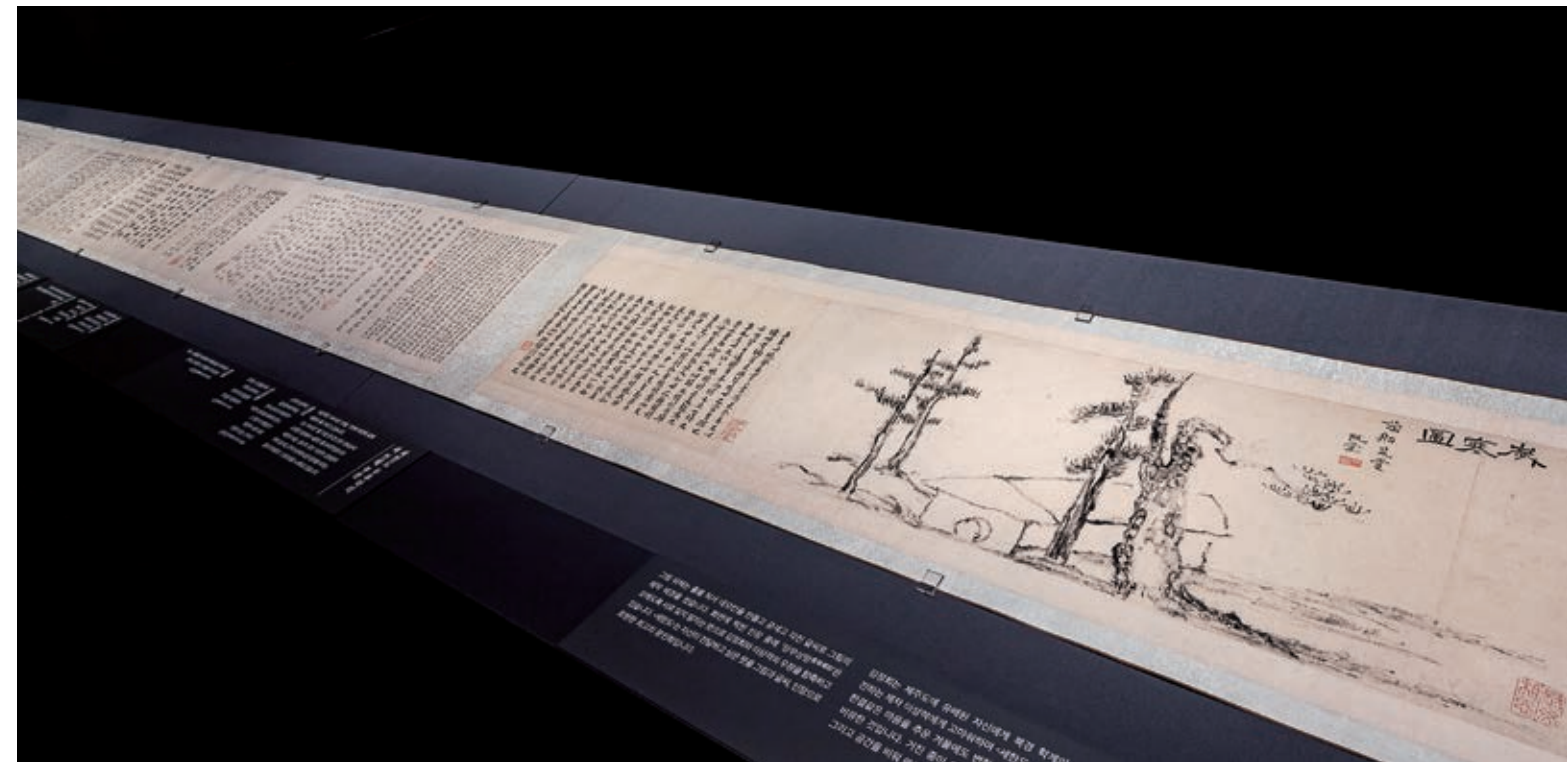
### 따뜻한 전시장, 모두의 보물

기증관 유물은 하나같이 기증자가 인생을 걸고 얻었고, 평생을 깊이 사랑해 돌보다 여기로 보낸 보물이다. 2실에서는 박물관 사상 최대 기증자인 이흥근 선생이 기증한 1만 건 이상의 유물 가운데 극히 일부인 서화 목록을 모니터로 보다 올려냈다. '14세기' '16세기' '강세황' '고희동' '김정희' '김홍도'... 키워드가 끝이 없다. 한 사람의 컬렉션이 이럴 수 있는가. 인권 변호사 최영도 선생은 청자·백자와 달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토기에 홀로 집중해 삼국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는 유물을 모아 기증했다. 선생의 수집과 연구는 그대로 한반도 토기 역사 교과서 수준이었다 한다. 서로 닮은 토기와 자기를 나란히 배치한 3실의 전시 기획도 흥미롭다. 백사 이항복이 1607년에 손주를 위해 직접 쓴 <천자문>,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선명한 유묵 등 수많은 유물이 말을 건넨다.

현대 작가의 기증품을 감상하는 4실 마지막, 김정희의 '세한도'가 발을 붙잡는다. 정말이지 이걸 어떻게 기증했을까. 오늘 여기서 만난 모든 유물 앞에서 든 생각이기도 하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쌓아 두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건만 누군가는 그 차가운 법칙을 뒤집어 다시금 지구를 따뜻한 곳으로 만든다. 전시장을 나오는 걸음이 뿌듯하다. 언제든 모두에게 열린 공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을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K**



서화는 보존하기가 까다로우니 기간을 정해 공개하는데, 기증관 재개관을 기념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고려 시대의 '수월관음도'를 5월 5일까지 전시한다.



# 春

## 따뜻한 날, 구례 영상 나들이


나무가 가지개를 켜고, 꽃봉오리가 하나둘 터진다. 쓸쓸하던 산과 들 판의 색이 서서히 푸릇푸릇해지는 지금. 수차례 맞이한 봄이지만, 이 즈음 늘 마음이 설레는 건 계절이 품은 생명력에 이끌려서일지도 모른다. 전남 구례도 봄맞이가 한창이다. 웅장한 지리산과 서정적인 섬진강 등 한국이 자랑하는 산과 강을 품어 날이 따뜻해지면 여느 곳처럼 여행자로 북적여서다. 지리산 중추에 도전하는 사람, 섬진강 변에서 소풍을 즐기거나 강줄기를 따라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모인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간질거리는 풍경의 연속. 한국의 자연미를 영상에 담고픈 영상 제작자라면 이 고장에 반하지 않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고택 쌍산재의 매력을 국내외 손님에게 전하며 화제를 부른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처럼 실제로 휴식을 주제로 한 영상 매체들이 촬영지로 구례를 택했다. 평화로운 자연뿐 아니라 불교 문화유산도 살펴볼 만하다. 지리산에 자리한 화엄사와 천은사, 높이 20미터 바위 사이에 세운 사성암 덕분이다. 특히 사성암은 기암절벽에 지었다는 특징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로 매체에 종종 모습을 보였다. 백제 성왕 때 해발 530미터 오


The trees are stretching, and flower buds are blooming one by one. The colors of the once lonely mountains and fields are gradually becoming vibrant. Now is the perfect time to experience spring in Gurye, Jeollanam-do Province. At this time of year, Gurye is bustling with those who are ready to embark on the challenge of climbing Jirisan Mountain, enjoying picnics along the Seomjingang River, or setting off on a cycling journey along the riverbank. The surrounding landscapes, one after another, tickle your heart and delight your eyes. If you're a videographer eager to capture the beauty of Korea's nature, Gurye would have been irresistible. Just like the popular reality TV show *Youn's Stay*, which was filmed in Gurye, various shows with rest and relaxation as a theme have found this county to be an ideal setting. Gurye also offers a glimpse into Buddhist cultural heritage,



# GURYE

지리산, 섬진강, 산수유로 이 계절에 더욱 화사한 전남 구례. 영상 작품으로 구례를 여행했다.

산 정상에 건립한 절로 오산암이라 불리다가, 의상대사·원효대사·도선국사·진각선사 등 고승 네 명이 이곳에서 수도한 후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무엇보다 사성암에서는 구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바로 옆에는 넓디넓은 평야가 시야에 들어오고, 저 멀리로 시선을 두면 지리산 능선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네 고승이 도 닦을 곳으로 사성암을 고른 이유를 알 것 같은 순간이다. 앞서 언급한 요소만으로도 여행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빠지면 섭섭한 것이 또 있다. 이 고장의 봄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보물, 바로 산수유꽃이다. 구례의 봄은 산수유나무가 색을 칠해 곳곳이 노랑고, 길을 걸기만 해도 기분이 두둥실 부푼다. 산수유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매년 산수유축제를 여는 데다 구례군이 산수유길이라 명명하고 조성한 산책로가 다섯 코스나 될 정도다. 누구보다 산수유꽃에, 따스한 봄날에 '진심'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산수유꽃은 물론 연분홍 벚꽃, 붉은 홍매화 등으로 다채로운 봄 동네 구례. 고즈넉하고 웅장하며 푸근한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을 이제 만나 볼 시간이다. 

with places like Hwaeomsa Temple, Cheoneunsa Temple, and Saseongam Hermitage worth exploring. Particularly, Saseongam Hermitage, situated between 20-meter-high rocks, exudes a mysterious atmosphere. From here, you can enjoy a panoramic view of the vast plains next to the Seomjingang River and the ridges of Jirisan Mountain in the distance. The reasons to visit Gurye are already abundant, but there's one more thing you wouldn't want to miss—the Cornelian cherry flowers. As spring unfolds in Gurye, the Cornelian cherry trees paint the surroundings yellow, creating a lovely atmosphere. The Gurye Sansuyu Festival celebrates the blossoming of the yellow flowers. Of course, you will also find pink cherry blossoms and red apricot blossoms. Listed below are some works filmed in this serene and enchanting county. 







#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MOVIE

## <외계+인 1부> #사성암



1391년 고려,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차지 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현대,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을 넘나드는 차원문이 열린다. 고려 시대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던 자들이 비밀리에 결성한 단체, 일본의 본부가 사성암이다. 절벽에 자리한 사성암 풍경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신비롭게 표현했다.

A door of time opens between Taoists seeking a coveted sword in the Goryeo Dynasty and those chasing an alien prisoner imprisoned in a human body in the present day. The backdrop of this interdimensional rift is Saseongam Hermitage.



DRAMA

##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용방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퇴사 후 인생 파업을 선언한 백수 여름과 삶의 이유를 찾는 도서관 사서 대범이 안곡마을에서 잔잔한 일상을 보낸다. 큰 배낭을 멘 여름이 새로운 터전 안곡으로 오며 거치는 시장은 구례오일장, 두 사람이 서사를 쌓는 안곡도서관과 안곡슈퍼는 용방면에 실제로 위치한 면사무소와 슈퍼마켓이다.

Yeo-reum, who has quit her job in the city, and librarian Dae-beom spend their days in the tranquil village of Angok. The market that Yeo-reum passes while carrying a large backpack is the Gurye Fifth-Day Market. Angok Library and Angok Supermarket are located in Yongbang-m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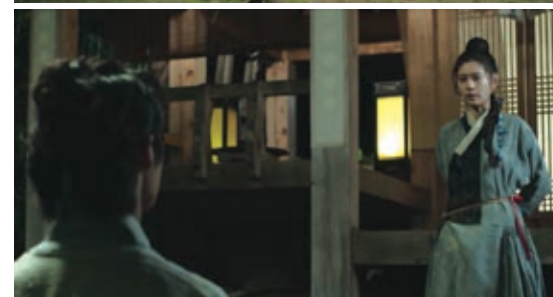


DRAMA

## <환혼> #쌍산재

가상 국가 대호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맞바꾸는 금지된 술법 환혼술이 존재했다. 천하제일 살수인 낙수는 환혼술로 자신의 영혼을 노비 무덕의 육체에 담는다. 무덕의 본래 정체를 알아본 장욱은 그에게 스승이 되어 달라 부탁하는데, 무릎을 꿇고 맹세하는 장면을 300년 세월이 담긴 고택 쌍산재 호서정에서 촬영했다.

In the fictional country Daeho, Nak-su traps her soul into the weak body of Mu-deok. Jang Uk, upon discovering Mu-deok's true identity, asks to become her disciple. This scene was filmed in Hoseojeong Pavilion in Ssangsanjae, a traditional Korean house with 300 years of history.



ENTERTAINMENT

## <자연스럽게> #현천마을



산수유나무로 이름난 현천마을. 주민이 사는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한 후 전인화, 김종민, 은지원, 조병규 네 명의 출연자가 정착해 슬로 라이프를 즐긴다. 곳곳에 셋노란 산수유가 기분 좋은 정경을 선사한다. 아기자기한 돌담과 지붕 낮은 집이 정겹고, 출연자는 마을 곁에 자리한 현천제에서 '물망'하며 마음을 다스린다.

The locals in Hyeoncheon Village, known for its Cornelian cherry trees, have their homes remodeled. The four cast—Jeon In-hwa, Kim Jong-min, Eun Ji-won, and Jo Byung-gyu—settle in and enjoy the slow pace of life. The yellow Cornelian cherry trees add to the picturesque setting.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열려라 수장고

공간 제약으로 미술관과 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작품이 관람객을 향해 활짝 팔을 벌린다.

##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은 경기 북부 지역 최초의 국립박물관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 경복궁에 있는 본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2021년 7월 23일 개방형 수장고로 개관했다. 3층 규모 건물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의 80퍼센트 이상을 옮겼는데, 7개의 '열린 수장고' 가운데 6개가 높이 13미터의 타워형으로 타워에 직접 들어가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목재·금속 등 유물은 창을 통해 밖에서 감상하는 '보이는 수장고'에 보관한다. 홈페이지에서 유물 위치와 수장고의 온도, 습도까지 알려 준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문의 031-580-5800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한국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으로 2018년 12월 27일에 문을 열고 2020년에 전면 개편했다. 방대한 소장품을 직접 감상하는 '개방 수장고'는 1·3층에, 유리창을 통해 대표 소장품의 보존 상태를 살피는 '보이는 수장고'는 2·3층에 위치한다. 6월 30일까지 <보이는 수장고: MMCA 이견희 컬렉션 해외 명작전>을 진행해 마르크 샤갈, 클로드 모네 등 해외 작가의 작품 일곱 점을 전시한다. 4층의 '특별 수장고'는 국립현대미술관이 1971년부터 수집해 온 1600여 점을 볼 수 있는 곳. 어린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의 043-261-1400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 대전 대전시립미술관

1998년 설립한 대전시립미술관은 공립 미술관 최초로 '열린 수장고'를 개관했다. 관람객과 소장품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2022년 10월 4일 입구 옆 지하 1층에 들어섰다. 대표 소장품인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대전 엑스포 때 전시한 모습 그대로 복원해 공개한다. 올해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DM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4>전에서는 미술관을 대표하는 소장품 38점을 소개한다. 회화나 사진 같은 평면 작품으로만 구성하며, 근현대 작품부터 주목받는 신진 작가의 작품까지 폭넓게 전시한다.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155 문의 042-270-7343



© 대전시립미술관

## 양주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어머니, 가족,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민복진은 한국 근현대 예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각가다. 경기도는 그의 작품을 기증받아 2022년 3월 4일 양주에 미술관을 세웠다. 2층에 221제곱미터 규모로 개방형 수장고 형태의 상설 전시실을 마련했고, 개관 1주년을 맞아 <집 HOME>전을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아리킴과 협업체 민복진 조각의 공간성을 '집'이라는 주제로 살피는 전시다. 5미터에 이르는 층고를 활용, 전시대 위쪽에 설치한 작품은 아래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주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2 문의 031-8082-4255



©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 BANHAL BUAN

부산 여행에 반할 즐거움

# 반할부산



### KTX 타는 순간 시작되는 여행

여행일	2024년 03월 ~
포함 내역	서울-부산 1인 편도 KTX 승차권 렌터카 24시간 1대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숙박, 개인경비 등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운대 달맞이길

### YOU CAR RENTAL CAR

KTX역에서 바로 타는 유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대여 지정 안내 : KTX 부산역 아스티호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호텔 1층 106호  
차종 : 아반떼, K3  
차량 업그레이드 (쏘나타, K5) : + 30,000원  
자차 보험 : 현장 결제



## 01 해동용궁사

김푸른 바닷물이 바로 발아래서 철썩대는 수상 법당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 02 수영 요트경기장

해운대 광안리 바다의 화려한 풍경과 감동을 요트 위에서 즐기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와우요트

\*'요트 투어' 별도 문의 시 가능



## 03 부산타워

부산의 모습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타워

부산 중구 용두산길 37-55



## 04 감천문화마을

한국관광 100선 5회 연속 선정된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

부산 사하구 감내2로 203

\*승하차역 및 인원 조정 문의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수기의 경우 예약 날짜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차 운행 조정, 기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인해 기차 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추천해 드리는 자유여행으로 여행자의 편의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차여행 패키지입니다.



# 사투리를 쇼츠로 내놨어요



댓글 창에 'ㅋㅋㅋ'가 난무하는 사투리 개그 숏폼이 쏟아진다. 1타 강사님이 선보이는 현란한 사투리에 감탄하며, 한 수 배워 보기로 했다.

\* 본 기사는 말맛을 살리고자 사투리로 작성했지만,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해 사투리 사용을 종결어미 위주로 한정했습니다. 지역별 방언 화자의 자문을 받았으나, 입말인 사투리를 문어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은 지역어를 알리고 가꾸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경상도 사투리 왔어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는 절대 다수의 방언은 동남 방언입니다. 한반도 동남쪽 영남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투리로, 갯상어라고도 부르지요. 동남 방언 사용자가 아이러도 “친구 아이가” “아부지 뭐 하시노” 같은 영화 대사는 익숙할 만큼 흔하게 활용되는 사투리고예. 다만 이래 마이 쓰니까 네 잘못된 사투리를 알아차리는 이들도 많심더. 유튜브 채널 <하말넘맘>의 크리에이터이자 대구 출신 화자인 강민지의 ‘사투리 기강 잡으러 왔어예’ 시리즈 영상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예. 드라마의 어색한 사투리를 짚어 내기 “모든 말에 멜로디를 붙이지 말라”라고 일갈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의 큰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예. 그런가 하면 ‘경상도 호소인’을 자처해 ‘맛꿀마’ ‘깔끼하다’ 등 실재하지 않는 사투리로 웃음 포인트를 삼은 <피식대학> 새 콘텐츠 ‘메이드 인 경상도’는 의견이 꽤 분분해 보이데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하말넘맘

© 피식대학



© 영아권

© 권재희

## “왈마, 전라도 사투리 맞제”

전라도 사투리는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든 서남 방언이라 하요. 한반도 서남쪽의 완만한 지형맹기로 말씨가 느긋한 한편, 발화자가 화를 내는 순간 분위기가 백팔십도 달라지는 반전 매력도 있더라. 최근 SNS상에서 서남 방언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흥행 중인걸 열매나 반가운지 모른당께요. 일단 개그 크리에이터 조재원의 먹방 한번 보시쇼. 전라도 사투리를 차지게 구사하는 어머니가 출연해 분위기를 제압하더라. ‘마라탕이 뭐시다냐’ ‘대나무 국수가 뭐시다냐’ 등으로 이어지는 ‘뭐시다냐’ 시리즈가 겁나게 웃겨분디, 최고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당께요. 광주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 문유성의 숏폼 영상도 봐야 않겠쇼.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번역해 냈는데, 어휘 선택이며 정서 표현이 하도 절묘해 갖고 이 시리즈를 ‘정주행’하게 된다. <겨울 왕국>의 테마곡을 개사한 ‘겨울 왈마’는 이미 무한 반복했지라.

# “충청도 사투리 여섯슈”

한반도 중남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충청 방언은 어미가 짧지만 길게 늘어 발음하는 경향이 있슈. 충청도 사람들이 느릿느릿하다는 오해가 바로 여기서 촉발됐을 거슈. 다른 지역 방언이 종결어미와 발음, 억양 등이 특징적인 데 비해 충청 방언은 은유적이면서도 우회적인 표현 방식이 인상적이슈.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아유”를 외치는 코미디언 최양락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슈? 최근엔 충남 아산 온양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소년시대>에서 쓰인 충청도 사투리가 관심을 얻었슈. 고깃집에서 선뜻 젓가락을 들지 않는 친구들에게 “다들 탄 고기를 좋아허?”라고 말하는 병태는 전형적인 충청 방언 화자여유. 코미디언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눈바람비꽃>의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김두영이 보여 주는 충청도 사투리의 맛도 기가 막혀유. 절대 본론부터 꺼내지 않는 충청도 화법의 정수를 보게 되거든슈. “내가 점심을 좀 일찍 먹긴 했는디”로 운을 떼는 충청도식 식사 약속 잡기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유.



© 쿠팡플레이

© 눈바람비꽃

# “강원도 사투리, 방금소야”

흔히 강원도 사투리라고 하는 언어는 영동·영서 방언이래요. 영서 지역은 경기 방언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억양이나 어휘 활용이 도드라지지 않지만, 영동 지역은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특징을 지녔다잖소. 영동 지역에서 사투리를 가장 활발히 지껄이는 곳은 강릉이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강원도 지역어를 표현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 하는 종결어미 ‘-드래요’는 강릉권은 안 쓰고 정선·태백 쪽에서만 씀다잖소.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씀 이래 일파만파 퍼졌는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래요. 풍부한 아카이브를 토대로 영동 방언 콘텐츠를 편집해 업로드하는 <MBC 강원영동> 유튜브 채널에서 본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우승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압권이래요. “뭐이 거라는 ㄴ기 거나?” “쟤전은 거실러 줄티니 그냥 다(우)와” 등 문장 하나하나가 귀에 날아와 꽃하니 마카 함 보시우야.

\* 강릉말사투리보존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 MBC 강원영동



# “제주도 사투리, 무신꺼렌

# “골암신디 모르크나?”

제주도 사투리는 다른 말로 제주 방언, 제주어렌 골읍니다. 2011년,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했는데, 그중에서도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덴마썸. 미디어에서도 제주어를 만나기란 쉽지 안허주마썸. 다만 2022년 방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영 <웰컴 투 삼달리>가 이야기의 무대를 제주로 삼으면서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수다. 최근엔 미디어의 제주어와 생활 제주어를 번갈아 가며 가르쳐 주는 영상으로 눈길을 끈 유튜브 채널 <뽀랭이맨> 덕분에 또 한 번 제주어를 배울 기회가 생겼수다. 문저 ‘타지인 오답률 97.1% 제주어 개사 노래’ 영상을 보게마썸. “대맹이부터 발끝까지 딱 소랑스러워~” 무신 노래인지 모르크과? 정답이 궁금허민 직접 확인헐서.

\* 제주학연구센터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 뽀랭이맨

# “서울 사투리는 표준어와 다르거덩어”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지만, 서울에도 사투리가 있어. 표준어 사정 원칙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기는 해두, 정작 전통적인 서울 사투리는 표준어의 그늘에 가린 채 무언중의 관심에서 멀어졌걸랑여. 서울 사투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서 배우 고아성이 1980년대 서울 여성을 연기하구부터일 거여. 치밀한 연구 끝에 탄생한 서울 사투리에 많은 시청자가 환호했드랬져. 최근엔 1990년대 TV 연예인 인터뷰 영상에 박제된 서울 사투리에 이어 쿠팡플레이 <SNL 시즌 4>의 ‘선데이 90’ 출연진이 선보인 서울 사투리가 화제를 모았어. 1990년대 말뽀머 패션에 고스란히 옮겨 감탄하게 되드라구여. 특히 X세대 상황극을 보면 “잘났어 증말” 같은 그 시절 유행어나 “그짓말” “어머 웬일이니” 처럼 서울말 특유의 억양이 잘 드러나는 대사가 등장해 웃음을 유발하거덩어.



© 이노플루투



© SBS

# 재미난 이야기 넘치는 도시 안동

한국 역사와 문화유산을 만나는 것은 물론, 유서 깊은 전통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안동. 이 고장을 여행하는 방법을 권기창 시장에게 물었다.



**Q. 경북 안동에서 나고 자라 안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신 데다, 이제는 안동시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자랑스러운 고장 안동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동시는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이자 경북 행정의 중심 도시입니다. 안동 하면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떠오르듯,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정신문화의 수도로 입지를 단단히 다진 고장입니다. 안동이란 지명은 고려 개국 시점 태조 왕건이 명명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930년 태조 왕건이 고창, 즉 지금의 안동 땅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후백제 견훤이 왕건을 도와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에 태조 왕건은 '동쪽을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의 새 이름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 방문객들이 '동쪽의 천국'이란 의미로 '이스트 헤븐(East Heaven)'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 표현해도 도시의 역사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Q. KTX 중앙선 노선이 기존 청량리~안동에서 서울~안동으로 바뀌며 서울역까지 연장되었죠. 그 덕분에 안동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A. 현재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도권 기준을 기준으로 반나절 안에 안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안동을 찾을 여행자를 위**

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축제의 재구성입니다. 안동 문화와 놀이를 접목한 사계절 축제를 계획해 봄에는 벚꽃 축제와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여름엔 시원한 수(水)페스타, 가을엔 흥이 넘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엔 암산얼음축제를 열어 항상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축제의 도시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동역에서 시작해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하루 만에 안동 곳곳을 둘러보는 시티 투어 상품을 강화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역에서 출발해 KTX-이음을 타고 안동에 닿아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시간은 안동 투어로 채웁니다. 그 후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Q.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안동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깃든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우선, 종갓집이 40여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중에 손님이 많이 방문하고, 유교의 본고장답게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봉제사점빈객(奉祭祀接賓客)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제를**



안동시청 © 안동시청

**“안동은 '지방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유적이 많습니다. 안동 문화유산 339점 중 고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지낸 후 나머지 음식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바로 안동 햇제사밥입니다. 또 하나의 자랑, 안동소주는 시간과 문화가 응축된 전통주입니다. 음식에 걸맞은 술을 손님에게 대접하다 집에서 직접 빚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선조들이 마셔 왔으니 검증된 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Q.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안동의 전통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안동은 '지방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유적이 많습니다. 안동 문화유산 339점 중 고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안타까운 점은 여행자 대부분이 건축물 외관만 감상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전통 가옥에 들어가 색다른 정취를 느껴 보세요. 하회마을 전통 가옥은 대부분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어요. 집 안에서 문을 열고 자연을 만끽하는 거죠. 특히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놓치지 마세요. 만대루에 들어 밖을 바라보는 순간, 낙동강과 서원이 이루는 절경을 마주할 거예요.**

**Q. 안동을 방문해 꼭 먹어 봐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A.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안동 문**



## PHOTO PICK 안동 여기서 한 컷

@andongcity\_official



♡ Q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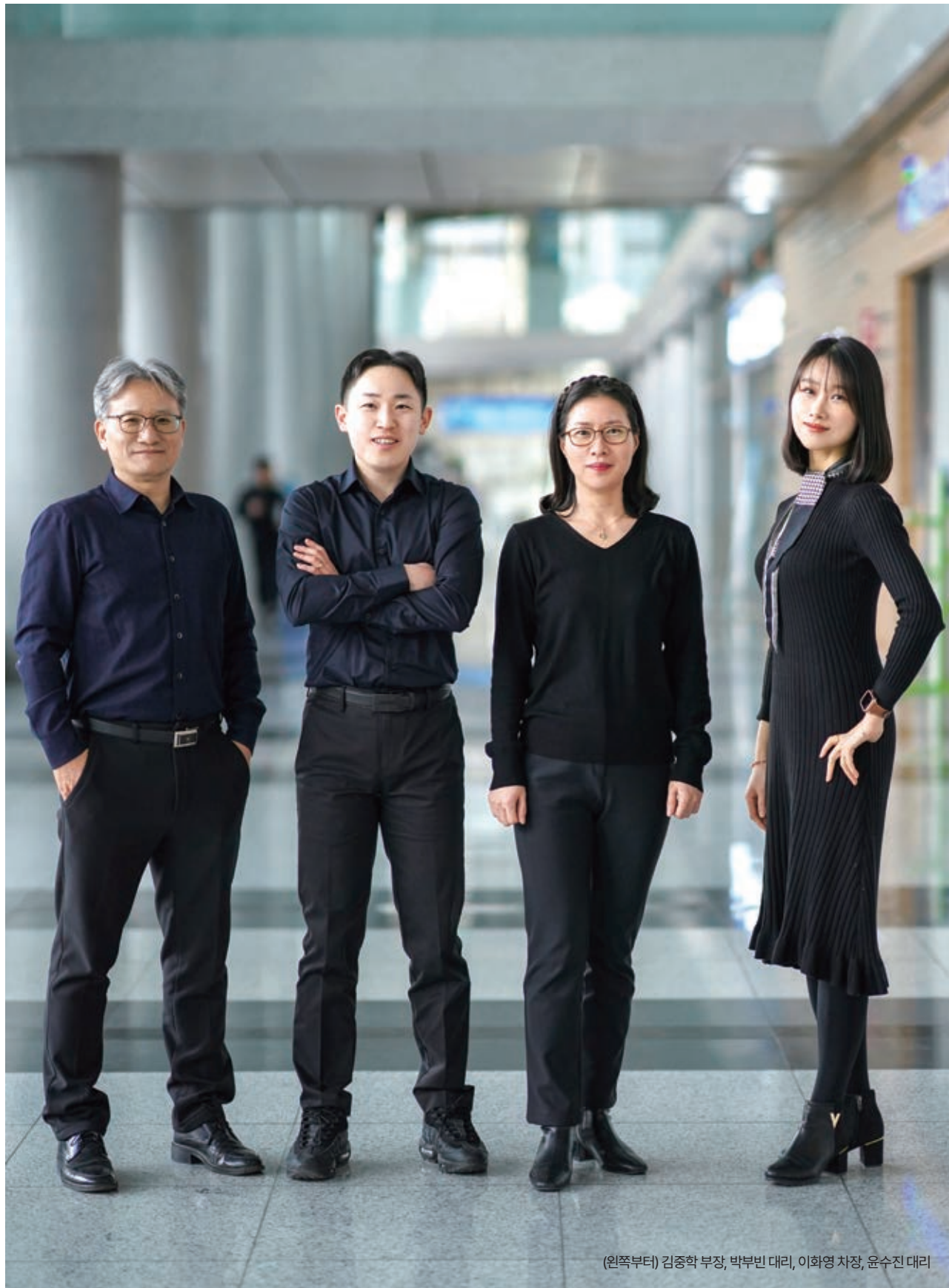
달빛이 흐르는 낙동강에서 '유유자적(悠悠自適)' 힐링하세요!

월영교 아래로 근심과 고민을 흘려보내고,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내일을 새겨요.

#안동 #월영교 #안동여행 #문보트 #낙동강 #인생네컷

어가 손님 대접에 빠질 수 없죠. 문어를 삶는 간수와 온도, 시간 등에 비법이 담겼어요. 안동 간고등어도 추천합니다.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내륙에 들여오면서 부패를 막기 위해 밤사이 고등어 배를 갈라 왕소금을 뿌렸는데, 이때 자연스레 간이 났습니다. 안동 간고등어는 짭조름해서 반찬으로 딱인 데다, 몸에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Q. 안동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에게 팁을 전해 주신다면요? A. 문화 자원이 방대해 꼬집어 얘기하기 고민되네요. 딱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사랑'을 테마로 안동을 여행하시길 권합니다. 500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원이 엄마가 머리카락을 삼 줄기 삼아 만든 미투리를 형상화한 월영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합시다, 러브" 같은 명대사의 배경인 만휴정 등 사랑과 관련한 장소가 여럿 있답니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월영교는 과거 낙천이란 강이 흐르던 곳이었습다. 예부터 수면에 비친 달그림자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해요. 월영교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 일대는 수상 공연장, 미디어 파사드 등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꾸밀 예정이에요. 밤에도 매력적인 도시 안동,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왼쪽부터) 김중학 부장, 박부빈 대리, 이화영 차장, 윤수진 대리

##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2차 아프리카사업부 한국 기술과 함께 달리는 탄자니아 열차

먼 대륙,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철도공사의 기술이 빛을 발한다.  
탄자니아 철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해외사업2차 아프리카사업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아프리카사업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KTX매거진> 독자님,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사업부 이화영 차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철도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사업부는 해외남북철도사업단 해외사업2차에 속한 부서예요. 김중학 부장과 윤수진 대리, 박부빈 대리까지 저를 포함한 네 명이 뭉쳐 사업 개발 및 관리, 해외 지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물론 탄자니아 지사도 운영합니다. 이승용 지사장을 필두로 열다섯 명의 지사원이 현지 직원 29명과 함께 자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Q. 사업 주축인 탄자니아 중앙선 표준

### 궤 철도 사업이 궁금합니다.

A. 인도양과 맞닿은 탄자니아는 빼어난 해안 풍경과 잔지바르섬, 킬리만자로산,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10년 전, 탄자니아 남부 노선인 음트와라-음밤바 베이 간 철도 노선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을 수주한 것이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예요. 당시 한국 기업 최초로 제일엔지니어링과 탄자니아 철도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주했고, 이후 2017년 중앙선 표준궤(SGR)

철도 건설 감리 사업을 맡아 현재까지 설계 검토, 기술 회의, 시공 관리,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철도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해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업 수주 당시에 느꼈던 기쁨을 되새기곤 해요. 이를 동력으로 철도 건설 현장에서 탄자니아 철도공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컨설턴트이자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Q. 철도 사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탄자니아와 신뢰 관계를 쌓았다고

### 들었어요.

A.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탄자니아 문화가 한국과는 판이하지만 한국 사람에게 무척 친절하다고 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 우리 직원들은 틈틈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밥퍼 자원 봉사'에 동참하거나, 쌀·옥수수 가루 등을 기부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철도공사 봉사단에서 탄자니아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IT 기기 등을 갖춘 e-도서관을 제공하고, 학용품과 의류 등을 전달했죠. 탄자니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탄자니아 철도공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초청 연수를 시행했고, 한국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탄자니아 철도 관계자에게 한국철도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이런 노력에 고마워하며 여러 방면으로 보답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 Q. 한국에서 진행한 탄자니아철도공사 직원 연수 중에 기억에 남는 에

### 피소드를 들려주세요.

A. 탄자니아 철도 직원들은 교육열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연수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도 현장의 실무 하나하나에 호기심을 가진 채 노하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4명의 탄자니아철도공사 직원이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5개월간 직무 교육을 받았을 때가 떠오르네요. 단기 연수가 아닌 만큼 긴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탄자니아 회사 생활은 물론, 그들의 가정사까지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Q. 2024년에 진행할 예정인 주요 사

### 업 이야기도 해 주세요.

A. 탄자니아는 신설 철도 개통을 준비 중입니다. 철도 건설과 철도 운영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철도 운영을 준비하는 탄자니아 철도공사를 위해 현재 한국철도공사 직원 11명이 탄자니아에서 운영, 유지 보수 관련 한국 철도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문 기간은 2025년 8월까지인데, 대규모 철도 건설이 끝난 후에도 운영 정상화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수한 기술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국철도공사가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더불어 탄자니아와 비슷하게 철도 개발 중인 케냐, 에티오피아 등 인근 국가와도 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Q. 탄자니아 여행자에게 팁을 귀뜸해 준다면요?

A. 국제 열차 탑승을 추천합니다. 탄자니아에서 잠비아를 거쳐 앙골라로 가는 국제 열차는 아프리카를 동서로 횡단합니다. 탄자니아는 한국철도공사 자문을 통해 현대화 설비를 갖춘 철도를 건설 중입니다. 훗날 한국 기술이 숨쉬는 아프리카에서 쾌적한 기차 여행을 즐기리라 기대해 봅니다. ③



# Treasure of Korea



## 고구려 사람의 기록 -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압록강 너머 넓은 언덕에 홀로 우뚝 서서 1600여 년 세월을 버텨 온 비석이 있다. 414년 고구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며 높이 6.39미터 거대한 돌기둥 네 면에 1775자를 빼곡하게 새긴 광개토태왕릉비다. 고구려 멸망 뒤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 가던 비석이 청나라 말기, 금석문 애호가들이 탁본을 제작하면서 다시금 존재를 드러낸다. 당시 비석에 가득한 이끼와 넝쿨이 탁본을 제작하는 데 거슬렸는지 비면에 말뚱을 바르고 불을 질렀다. 대참사였다. 이 때문에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다 추정한다. 석회를 바르기 이전의 탁본을 원석 탁본, 이후의 것을 석회 탁본이라 구별하는데, 원석 탁본이 자료로서 가치가 더 높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광개토태왕릉비 원석 탁본과 고화질 이미지를 활용해 복원한 원석 탁본 디지털 복원본을 전시한다. 이 봄, 고구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 Records of the People of Goguryeo - Rubbed Copy of the Epitaph on the Monument for King Gwanggaeto

On a broad hill beyond the Amnokgang River stands a solitary monument. It is the monument for King Gwanggaeto, erected in 414 by King Jangsu to honor his father. The monumental stele is intricately engraved with 1775 characters on all four sides. It gradually faded from memory until the late Qing Dynasty, when enthusiasts of antiquities began producing replicas. The replica made before applying lime is called the raw stone rubbed copy, while the replica produced with lime is known as the lime rubbed cop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xhibits a digitally restored version of the raw stone rubbed copy. This spring, let us lend our ears to the tales of Gogury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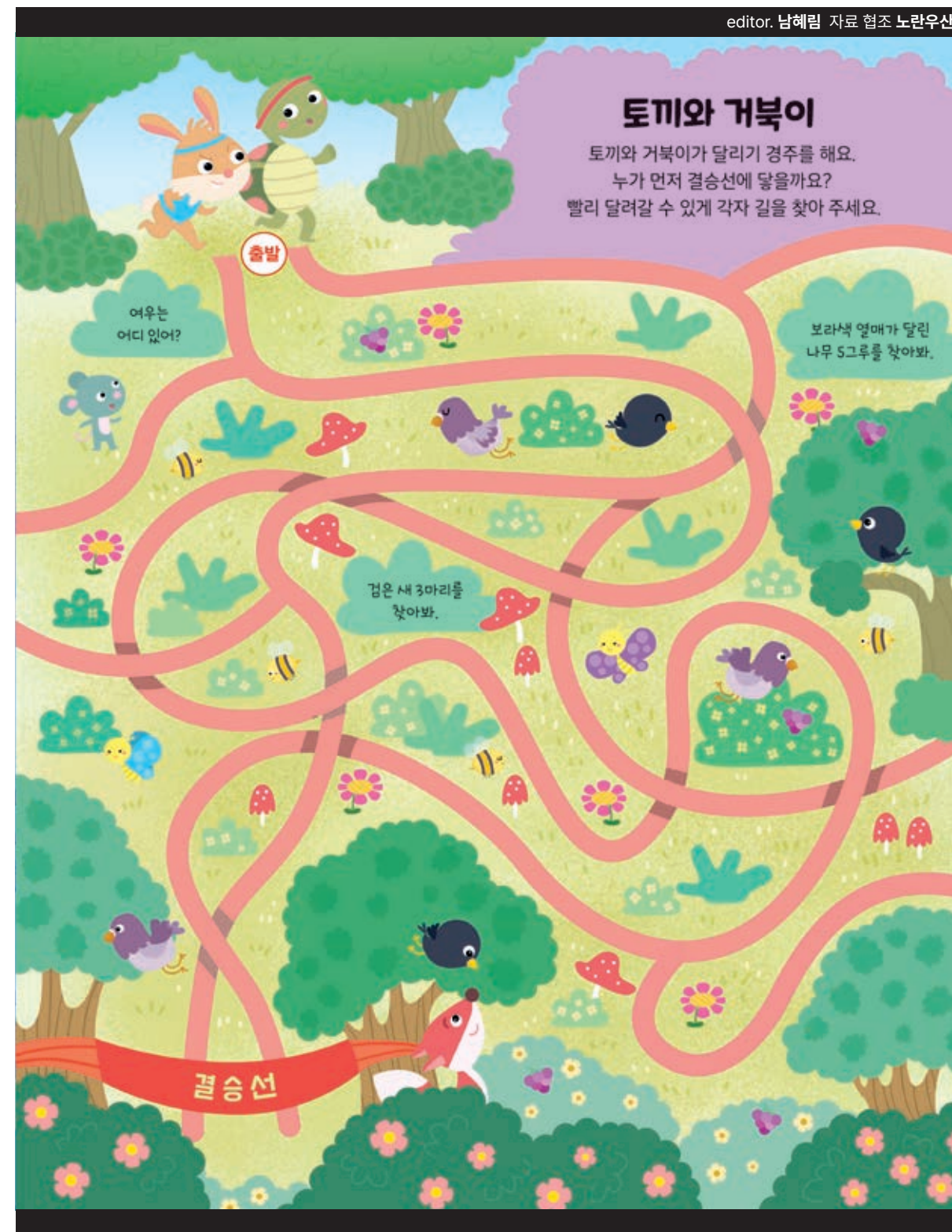


### <생각의 힘이 커지는 미로찾기>

보석을 찾는 탐험가, 말을 타고 시합하는 기사, 지구와 우주, 사람과 동물 등 흥미로운 주제로 만든 미로찾기 70편을 수록했다. 미로찾기 놀이뿐 아니라 숨은그림 찾기, 숫자 세기에 관한 질문 등 구성이 알차다. 밝고 생동감 있는 그림 덕에 놀이 시간이 더욱 신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 Puzzle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 다음역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 정답은 112쪽에 있습니다.

\* 정답은 112쪽에 있습니다.

# Culture

전시·시간

EXHIBIT



### <378.5m: 역과 역사>

1925년 문을 연 경남 진주역은 6·25전쟁 이후 1956년에 재건했고, 2012년 경전선 복선화 공사를 위해 가장동 신역사로 이전했다. 전시 제목에 쓴 378.5미터는 최초 진주역사와 전후 재건한 구 진주역사 사이의 직선거리를 뜻한다. 전쟁으로 소실되거나 흩어진 자료를 재편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진주역 주변의 풍경과 풍속을 보여 준다. 전시 장소는 이 모든 세월을 지켜본 산증인인 일호광장 진주역이다.  
기간 4월 28일까지 문의 055-752-9877(경남 일호광장 진주역)

### <늘 푸른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내리다-생명의 그물망>

벽과 바닥을 타고 뻗어 가는 소나무, 그 옆에 무심히 놓인 돌이 눈을 사로잡는다. 공업 소재인 동 파이프로 자연물을 형상화해 만물의 생성 원리를 이야기해 온 조각가 이길래는 이번 전시에서 조각과 드로잉 등 106점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무생물인 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세포 같은 작은 고리를 반복적으로 결합해 완성한 그의 작품은 이 우주가 거대한 유기체임을 역설한다.  
기간 4월 21일까지 문의 02-736-4371(서울 사비나미술관)



BOOK



### <밥 먹다가 울컥>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이야기가 되는 글이 있다. 박찬일 요리사의 글이 그렇다. 음식이 사람이고 세상이며, 그리하여 한 그릇에 우주가 담겼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은 그의 삶을 거쳐 간 사람들을 말한다. 서러워서 차마 삼키기 어려웠던 수많은 사연, 초라해도 한없이 다정해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게 한 음식. 제목처럼 울컥, 그리움이 치민다. 박찬일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눈물꽃 소년>

어린 시절은 '인기 상품'이다. 수많은 인사가 추억을 꺼내 공감과 재미, 교훈을 주었다. 저자는 그 흐름에서 물러서 있었다. 혹독한 시대에는 노동자로서 세상을 직시했고, 이후엔 분쟁에 시달리고 가난한 전 세계 아이들 곁에서 함께 울었다. 그런 그가 이제야 어린 시절을 들고 왔다. 전라도 자연에서 뛰노는 소년과 주변 사람 이야기 등을 다독인다. 박노해 지음 느린걸음 펴냄



### <우리가 길이라 부르는 망설임>

사춘기와 청년 시절은 물론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라도 카프카를 읽고 나면, 남은 삶은 그와 동행하게 된다. 존재의 불안함과 고독을 말하는 카프카의 문장, 소설 속 장면이 순간순간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카프카 100주기. 이를 기념해 시 전집이 나왔다. 시 116편에, 최근 공개된 드로잉 60점까지 실었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편영수 옮김 민음사 펴냄

영상 콘텐츠·공연

MOVIE



### <돌핀>

신문기자 나영은 충남 서천 바닷가 집과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 삶의 이유이자 즐거움이다. 하지만 엄마의 재혼과 동생의 독립 선언으로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다. 혼란 속에서 우연히 알게 된 볼링. 동네 볼링장 사장 미숙과 서울에서 온 해수 덕에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호평받았다. 3월 개봉. 감독 배두리 출연 유리, 길해연



### <패스트 라이브즈>

어린 시절 서울에 두고 온 인연과 다시 마주하는 나영, 인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미국 뉴욕에 온 해성. 24년에 걸친 그들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흐른다. 영화 배경은 서울과 뉴욕을 오간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자전적 일화를 그린 데뷔작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3월 6일 개봉. 감독 셀린 송 출연 그레타 리, 유태오

SHOWS

### <최수진 Alone>

현대무용가 최수진과 인공지능이 만났다. 둘 사이에 예술적 소통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기획. 상실감, 외로움, 분노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챗GPT가 글과 음악으로 출력해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시각으로 마주한다. 섬세한 몸의 움직임이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전하며 마음에 닿는다. 일시 3월 30일 오후 3시, 7시 장소 대전 예술의전당 문의 042-270-8333



### <이솝이야기>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뮤지컬 부문 선정작. '이솝 우화'를 모티프로 한다. 용감한 이야기꾼 티모스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다나에는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돌도 없는 친구다. 하지만 이들을 질투한 불행의 신이 티모스를 아테네로 쫓아낸다. 대지·바람·물은 목소리로 등장해 친구에게 돌아가는 그의 길을 지킨다. 음악, 현대무용, 프로젝션 맵핑 등이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다. 기간 4월 14일까지 장소 서울 충무아트센터 문의 02-2230-6600



###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해마다 작곡가를 선정해 집중 감상하는 아트센터인천의 '작곡가 시리즈'. 올해는 베토벤의 명곡을 다양한 편성으로 선보인다. 첫 번째 공연에서는 지휘자 홍석원과 KBS교향악단이 교향곡 제7번과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협연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이 무대에 오른다. 1년 동안 총 다섯 번에 걸쳐 쟁쟁한 연주자가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일시 3월 16일 오후 5시 장소 아트센터 인천 문의 032-453-7700







# Letters from Readers



##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 강릉을 사랑한 얼굴들

서울 가는 길에 펼친 <KTX매거진> 2월호에서 강원도 강릉의 웰니스 프로그램 소개가 눈에 들어오네요. 교직 생활을 마치고 함께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친구들끼리 가면 맞춤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로



### 남만목포골목예찬

전남 목포 시화골목, 주민들만의 사연이 예술을 입고 작품이 된 곳. 그 따스하고 예쁜 골목 사이로 보일 목포 바다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가 생겨 저도 가슴이 설레네요.

김현진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mailto: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3월 15일입니다.

## 기차로 여행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공룡과 KTX라고 당당히 말하는 네 살 아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 할머니께 드릴 그림을 그렸어요. 아직 글자를 전혀 모르는데, 'KTX' 세 글자만은 잘 아네요!

이재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무설탕 초콜릿을 코팅한 한 봉 건과 초코헬스 제로넛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 제로인 초콜릿 간식으로, 무설탕 초콜릿을 입힌 아몬드·헤이즐넛·캐슈너트가 골고루 들었습니다. 카카오 버터를 넣은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 등 높은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포장이 예뻐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제품 문의 02-791-0756



# Information



제14회 철도사진공모전 은상 '하늘, 바다, 이음'



- 098  
코레일 소식
- 106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8  
열차 이용 안내
- 110  
비상시 행동 매뉴얼





## GTX-A 개통 대비 사전 점검 회의 개최



한국철도공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대비해 사전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 위탁으로 GTX-A 노선 중 1단계 개통 구간(수서~동탄)의 기반 시설 유지, 관제 업무 등을 담당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실시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월 대전 사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한문희 사장과 권세호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2급 이상 간부 등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 한국철도공사, 대구 수성구에서 설맞이 나눔 활동



한국철도공사 권세호 상임감사위원이 설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청을 방문해 3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떡국, 부침 가루 등 다양한 명절 음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철도공사 감사실 봉사단은 매년 주변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개인 정보 보호 합동 캠페인 진행



개인 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월 대전역에서 개인 정보 보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 기관은 대전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부착한 핫팩을 나눠 주었다.

## BUY TRAIN TICKET ONLINE

SCAN QR CODE AND YOU DON'T NEED TO WAIT IN LINE

외국인도 역창구 대기 없이 빠르게 승차권 구입

역사 내 QR코드 스캔 후 다국어 예매 사이트 접속 가능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주요 역사에 외국인 예매 QR코드를 배치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승차권 예매 외국어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어 외국인도 승차권을 편리하게 구입한다. 기존 역사 내 자동 발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던 해외 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다.



## 국내기차여행 최대 50% 할인!

- 예약 기간: 2월20일~3월31일  
- 탑승 기간: 3월1일~4월14일

### ①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 할인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

**\*사용 방법**

- 지역숙박, 관광지 입장권 등과 연계한 KTX 기차여행상품 구입 시 할인 적용
- KTX 할인과 결합한 지역 여행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 (50여개 코레일 협력 여행사 연계)

**\*판매처**

- 코레일 앱(www.letskorail.com), 코레일톡, 코레일 협력여행사 홈페이지

### ② 관광열차 5개 노선 할인

최대 50% 할인

**\*참여 노선**

- 서해금빛열차 용산~익산
- 남도해양열차 서울~여수엑스포 / 부산~광주송정
- 동해산타열차 강릉~분천
- 정선아리랑열차 청량리~아우라지
- 백두대간합곡열차 영주~분천~철암

**\*판매처**

- 코레일 앱(www.letskorail.com), 코레일톡, 현장발권

여행가는 달의  
풍성한 할인혜택과 세부내용은  
우측의 QR코드로 확인하세요.



##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 고객의 편지

지난 1월, 고교 동창 여섯 명이 경기도 평택에서 경북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점심 식사를 즐긴 후 대릉원 앞을 거닐 때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크게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로 다음 날 오후까지 일정을 마쳤지만, 친구는 목발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다시 평택으로 돌아가는 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주역 역무실을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니 역무원님이 저희 일행을 친절히 맞은 후 휠체어를 대어 주셨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안내 덕분에 다친 친구와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 경주역 역무원 정응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사원입니다. 그날 고객님의 오셔서 친구가 경주 여행 중 다리를 다쳤으며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휠체어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착역에서도 도움을 받으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경주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실까 염려했는데,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안심입니다. 고객님의 감사 편지가 철도 생활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레일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우주 꿈나무들의 즐거운 교육놀이 문화공간

# 우주과학열차

- 고흥 나로우주센터 -

# 우주항공열차

- 사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

고흥 나로우주센터 ←

이번역은 우주과학/항공열차입니다.

→ 사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 고흥 나로우주센터 견학프로그램



우주과학관  
(우주 원리, 로켓, 인공위성, 우주탐사 탐런 전시)



발사통제지휘소(MDC)



발사대



발사체보관동

## 사천 KAI 견학프로그램



한국형 전투기(KF-21), 훈련기(T-50)  
생산시설



기체 생산시설



에비메이션 캠프  
(항공기 개발과 생산과정의 과학원리 체험)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 역사와 기체 모형 전시)

# KORAIL SNS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 KTX-이음 타고 제천 여행\_충북 제천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 KTX-이음으로 떠나요.



서울-부산 KTX 요금 5만 원 할인받는 숨은 꿀팁? '전역자' 서울역 편 전 세계의 모든 역을 리뷰하는 자, '전역자' 시리즈! 이번엔 서울역입니다.



KTX 서울역 가 볼 만한 곳\_서울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치는 분들을 위한 영상! 열차 타기 전 둘러볼 서울역 근처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용산역 여행객 편 직접 찾아가는 기차역 인터뷰! '지금 어디 가세요?' 2편 영상입니다.



정선아리랑열차 타고 단종 유배지 영월 힐링 여행\_송림이 울창한 청령포, 장릉 등 강원도 영월을 영상으로 만납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무려 KTX를 타고 가 보았습니다! KTX-이음 복합 열차 운행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탑승해 봤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TRAVEL NEWS



**행남해안산책로**

국가지질공원 중 하나로, 도동에서 저동 촛대바위까지 잇는 길이다. 걸음을 땀 때마다 기암절벽과 천연 동굴이 감탄을 부르고, 발아래로는 넘실거리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여 황홀해진다. 바다를 바로 곁에 둔 채 산책하니 가슴이 뻥 뚫린다.



**관음도**

죽도, 독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울릉도 부속 섬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시림이 고스란하다. 2012년 울릉도 섬목과 관음도 사이에 연도교를 놓아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섬 북쪽 해안 절벽에 높이 14미터가량의 관음쌍굴은 배를 타고 감상할 수 있다.



**성인봉**

울릉도의 서면과 북면을 가르는 높이 984미터 산이 웅장하다. 등산로가 상당히 거칠고 깎아지른 절벽이 많아 완등을 목표로 한다면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성인봉 중간의 원시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화창한 날에는 정상에서 독도가 보인다.



**내수전**

내수전 해변은 몽돌이 가득해 돌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바다멍'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바닷물이 맑아 주변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즐긴다. 400미터 높이 해안 절벽에 자리하는 내수전 일출 전망대에 오르면 저동과 죽도, 관음도가 반겨 준다.

##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 낸 비경



**나리분지**

나리꽃이 주로 자생해 지은 이름이다. 화산 폭발로 생성된 나리분지는 무려 축구장 스물여덟 개를 합친 것과 규모가 비슷하다. 트레킹 중 주변을 잘 살핀다면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울릉국화 등 육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희귀한 식물과 만난다.



**태하항목 관광모노레일**

모노레일을 타고 항목전망대와 태하리를 오간다. 20인승 모노레일 두 대가 길이 304미터 레일 위를 분당 50미터 속도로 움직인다.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편도 약 6분. 거동이 불편한 이도 손쉽게 태하항목 정상 풍경을 감상한다.

사진 제공 울릉군청 공보팀

## 울릉도 여행



### 울릉도 KTX 레일십 확대

한국철도 대구권 여행센터가 청정 지역 울릉도로 떠나는 'KTX 레일십' 상품을 소개한다. KTX 승차권과 울릉크루즈 6인실 이용권을 함께 담은 패키지로, 여행자가 자유롭게 날짜를 선택하고 코스도 구성할 수 있다. KTX 승차권과 울릉크루즈 6인실 이용권을 따로 구매할 때와 비교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니 알뜰하다. 울릉도민을 위한 상품도 마련했다. 열차 연계 시각에 맞춰 경주역-포항영일만신항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놓치지 말고 이용하자.

**상품 안내**

**기간별 열차·선박 운행 시간 안내**

평수기 및 동절기에는 선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홈페이지 상품 예약 페이지 공지 사항 참고)

**왕편 열차**

서울역→경주역 / 부산역→경주역 / 부전역, 태화강역→경주역 / 동대구역→경주역

**복편 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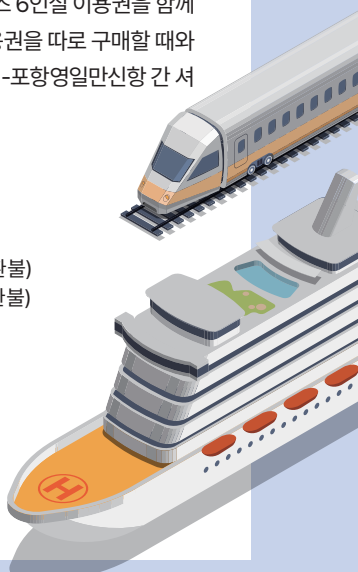
경주역→서울역 / 경주역→부산역 / 경주역→태화강역, 부전역 / 경주역→동대구역

**취소 수수료 안내**

출발 3일 전 수수료 0퍼센트 부과(전액 환불)  
출발 2일 전 수수료 10퍼센트 부과(90퍼센트 환불)  
출발 1일 전 수수료 20퍼센트 부과(80퍼센트 환불)  
출발 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참고

**구입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주요 역 여행센터



## 편의 시설

###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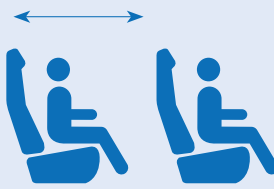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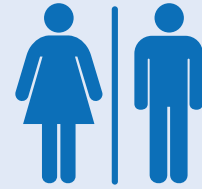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AMENITIES

###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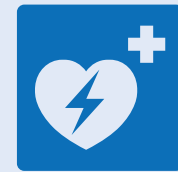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료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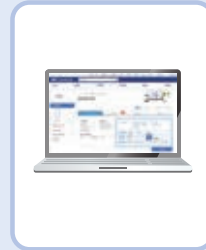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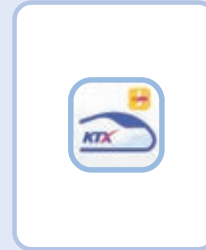
## 열차 이용 안내

###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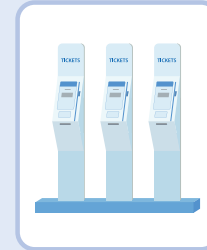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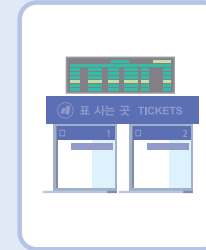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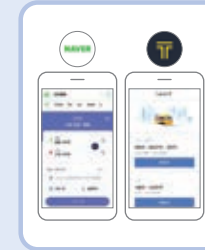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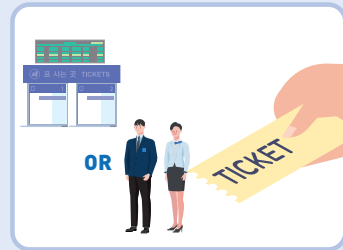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 PASSENGER GUIDE

###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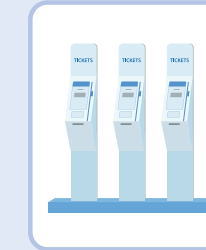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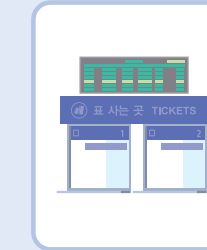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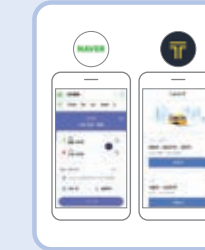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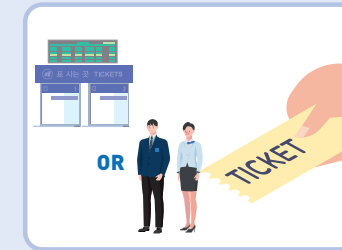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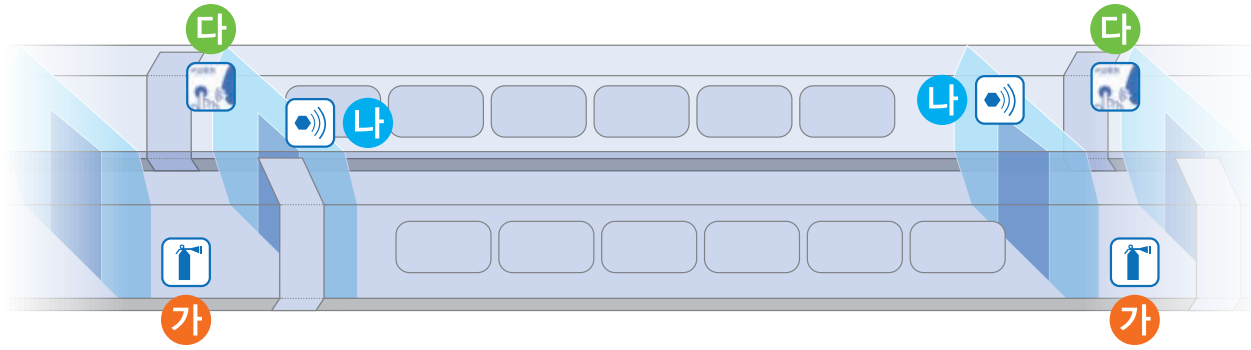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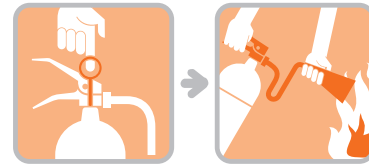
# 비상 상황

#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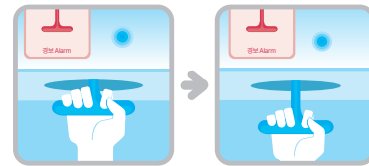
##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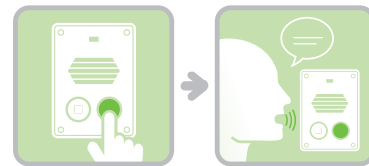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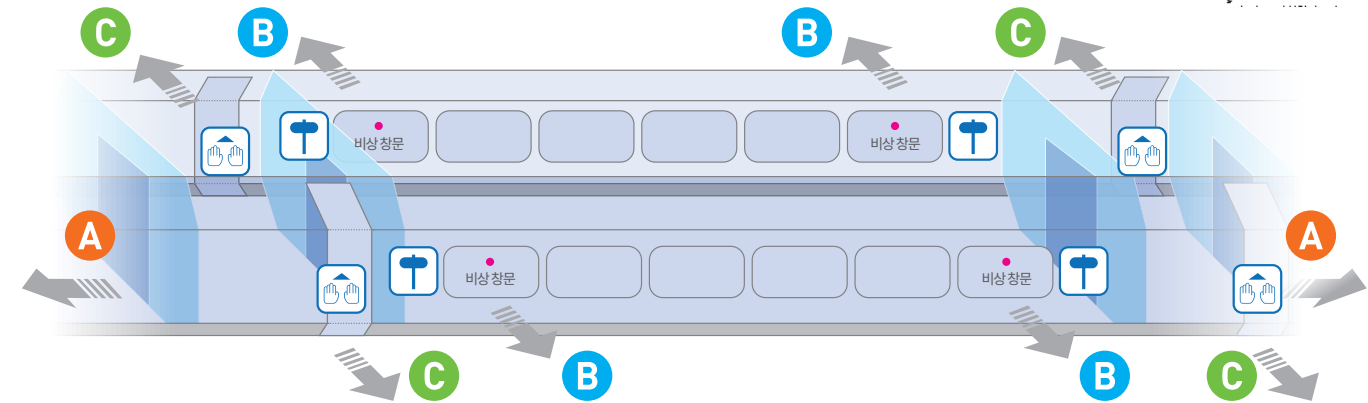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 비상 탈출

# EMERGENCY ESCAPE ROUTE



##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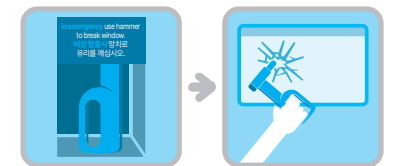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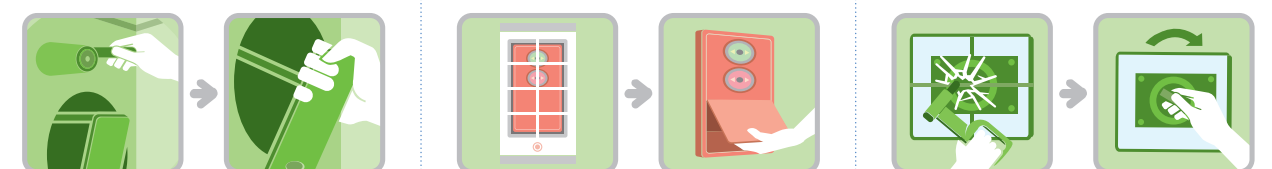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 Epilogue



### 그 후로도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정해진 지면에 소개하느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기사에 못 쓴 이야기가 한 다발이다. 그 유명한 <성문영어> 시리즈 저자 송성문 선생은 옛 서적이 제지 공장에 무차별 실려 가는 모습을 보고 수집에 입문한다. 약 30년 동안 100여 점, 자식 같고 피 같은 책을 2003년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한다. 국보가 4점, 보물이 22점이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집안에서는 선생이 무려 1607년에 직접 쓴 <천자문>을 내놓았다. 손주를 향한 사랑이 담긴 친필 <천자문>에 가슴이 뭉클했다. 유물도, 사람도 그렇듯 눈물겹게 아름답다. 유물에서 숨결이 느껴지는 이유는 유물이 사람의,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증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네. 전 시실 태블릿 영상 꼭 보세요. 정기 해설도 운영해요. 감동의 시간입니다. + 이원진 학예사님, 친절한 설명 고마웠습니다. **김현정**

### 말을 글로 옮기며

박목월의 시 '사투리'를 좋아한다. "우리 고장에서는 오빠를 오라 베라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오오라베 부르면/ 나는 앞이 캄 막히도록 좋았다." 사투리이기에 도달할 수 있는, '캄' 막히도록 아름다운 언어의 경지 아닌가. 이달에 사투리를 주제로 한 글을 사투리로 썼다. 문어체로 사투리를 논하자니 도저히 말맛이 살지 않아서다. 다만 온전히 구사할 자신이 없어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았다. 제주학연구원 김미진 선생님, 강릉말사투리보존회 김혜경 선생님, 경북 국립청도숲체원 문나래 선생님, 서남 방언을 감수한 교정자 미경 선배께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사투리를 보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사진은 지난달 강원도 강릉 취재 중에 만난 '마카모예' 간판. 강원도 사투리로 '모두 모여'란 뜻이다. **강은주**

### 뜻밖의 행운

숫자 2와 관련이 많은 저는 2월을 좋아합니다. 경북 안동 취재 이틀 차, 공교롭게도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점심 즈음 전화를 거신 엄마가 "미역국도 못 먹어서 어떡하니"라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취재는 멈출 수 없죠. '테마 여행' 기사에서 소개할 가게로 가는 길. 예끼마을에서 점박이 길고양이와 맞닥뜨렸어요. 발밑에서 한동안 애교를 부리더니 저를 안내하듯 앞서 가더라고요. 기분 좋은 상황에 웃으며 가게로 들어갔는데, 글썽 가게 사장님도 그날 생신이셨지 뭐예요! 사실을 알고 난 후 사장님과 한참 웃음을 터트리다가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촬영한 메뉴에 미역국이 있어서 얼떨결에 생일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쌀로 만든 떡케이크도 주셔서 감동 백배. 잊지 못할 생일, 안동에서 보내 다행입니다. **남혜림**

###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겨울 끝자락에서 눈을 실컷 봤다. 눈은 시시때때로 나에게 다른 감각을 줬다.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낮모르는 누군가의 안전을 바랐고, 삼척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는 눈으로 덮인 숲의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가 없어 책을 덮고 잠시 바라보기도 했다. 눈에 대해 말하자 어떤 눈이냐고 묻는 이도 있었다. "아, 사람의 눈 말고요."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었다. 말하고 나니 실은 사람의 눈도 그만큼 많이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요한 창에 비친 나의 눈과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 주는 새로운 사람들의 눈. 그리고 오랜 시간 나를 지켜봐 온 따뜻한 눈까지.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복잡하게 얽힌 진심이 들어 있다. 눈과 눈이 서로를 마주한다. 매번 봐도 새롭게 다가오는 풍경이다.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들 알고 있지요? **김수아**



### Puzzle



93쪽 '퍼즐' 정답



# 우제길 WOOJAEGHIL 초대전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2024.3.5.TUE.-  
5.12.SUN.



빛 사이 색

LIGHT SPACE COLOR